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의 상관연구



2011년 12월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 육 학 과

전 주 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의 상관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ight Personality Types of Saju-Myungri  
and Eight Functional Personality Types of MBTI

지도교수 : 김 병 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전 주 영

전 주 영의 석 사 학 위 논 문 을 인 준 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2011년 12월 일

창 원 대 학 교 대 학 원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3. 연구의 제한점 .....	5
II. 이론적 배경 .....	6
1. 사주명리학 .....	6
2.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	24
3. MBTI 성격유형 .....	37
4. 선행연구 .....	50
III. 연구 방법 .....	52
1. 연구대상 .....	52
2. 연구도구 .....	52
3. 연구절차 .....	53
4. 자료처리 .....	54
IV. 연구결과 .....	55
1.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의 관계 .....	55
2. MBTI 에너지 방향과 사주명리학 성격유형간의 관계 .....	62
V. 논의 .....	67
VI. 요약 및 결론 .....	71

참고문헌 .....	74
Abstract .....	78
부록 .....	80



## 표 목 차

<표Ⅱ-1> 사주팔자의 예 .....	7
<표Ⅱ-2> 사주명리학의 구분 .....	7
<표Ⅱ-3> 사물의 음양 속성 분류 .....	10
<표Ⅱ-4> 오행의 속성 분류 .....	12
<표Ⅱ-5> 십간의 음양오행 분류 .....	13
<표Ⅱ-6> 십이지지의 음양오행 분류 .....	13
<표Ⅱ-7> 지장간 .....	14
<표Ⅱ-8> 십천간의 성질 .....	16
<표Ⅱ-9> 오행상생의 법칙 .....	19
<표Ⅱ-10> 오행상극의 법칙 .....	20
<표Ⅱ-11> 십성의 구분 .....	22
<표Ⅱ-12> 십성의 조건표 .....	23
<표Ⅱ-13>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의 성향과 기능 .....	33
<표Ⅱ-14> 사주명리학의 성격간명표 .....	35
<표Ⅳ-1>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간의 관계 ....	55
<표Ⅳ-2> 내/외향성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	63
<표Ⅳ-3> 사고/감정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	64
<표Ⅳ-4> 감각/직관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	66

## 그 립 목 차

[그림 II-1] 오행의 상생 .....	19
[그림 II-2] 오행의 상극 .....	20
[그림 II-3] 갑목(+) 일간의 십성의 예 .....	21
[그림 II-4] 용의 이론에 따른 정신의 4기능 .....	38
[그림 II-5] MBTI 16가지 성격유형 .....	44
[그림 IV-1] 정인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56
[그림 IV-2] 편인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57
[그림 IV-3] 상관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57
[그림 IV-4] 식신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58
[그림 IV-5] 편재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59
[그림 IV-6] 정재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60
[그림 IV-7] 편관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61
[그림 IV-8] 정관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	62
[그림 IV-9]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별 사고/감정 분포 .....	6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기질적 특성을 지니며, 또한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과 판단을 한다. 이것은 성격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행동 및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딪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때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기만 하다면 인간을 이해하기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지니는 각기 다른 성격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성격이론들을 제시하였다.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융(1921, 1971)은 자신의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스러운 갈등을 밑거름으로 심리학적 유형론을 탄생시켰다. 융은 유형론에서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사람들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동양에서도 오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역(易)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우주의 변화법칙을 담고 있는 것을 ‘역(易)’이라고 부르고, 그 변화의 법칙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소우주로 보았다. 그래서 수 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변화법칙을 바탕으로 인간 삶의 법칙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은 의학, 철학, 정치, 종교 등 다

방면에서 나타났으며, 사주명리학 역시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사주명리학은 인간의 운명을 동양철학의 음양이론 및 오행이론을 바탕으로 이치적으로 해석한 학문이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기운을 받게 되는데 각 개인이 타고난 우주기운을 음양오행의 부호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부호들을 해석해 냄으로써 한 개인이 타고난 성격, 적성, 환경, 소질과 사회적 발전가능성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주명리학은 이후 당나라 때 서양의 점성학이 더해지면서 성격적인 해석과 운을 보는 데 있어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이용준, 2004).

우리나라에서 사주명리학의 기원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조선왕조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음양과(陰陽科) 내의 명과학(命課學)에서 찾을 수 있다. 명과학은 바로 사주명리학을 지칭한다. 1460년 세조 6년에는 전문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을 국가에서 과거시험으로 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한 탄압과, 해방이후 우리사회의 주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끊임없이 무속과 미신으로 단죄되어(조용현, 2001), 문화의 전반에서 물러나 이면적 문화의 형태로 명맥이 유지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이후 수 천 년 간의 학문적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과학적 학문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사주명리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하에 최근에 와서야 국내의 대학들에서 사주명리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미라, 2010).

동양 고대의 역(易)사상은 옴 스스로도 강조하는 것처럼 옴의 심리학과 서로 통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음양강유(陰陽剛柔)의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에서는 팔괘(八卦)가 생기는 변환의 법칙은 옴이 경험적으로 파악한 외향, 내향, 의식, 무의식의 대극형

성과 그 상호보완 또는 전환의 원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부영, 2010).

융의 심리학과 사주명리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격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융은 심리학적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로 구분하였으며 정신의 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사고와 감정, 감각과 직관은 서로 극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사주명리학에서 성격을 설명하는 방식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음양이론은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의 일반적인 태도인 외향성·내향성과, 오행이론이 가미되어 상극으로 나타나는 관성(편관, 정관)과 식상(식신, 상관), 재성(편재, 정재)과 인성(편인, 정인)은 정신의 4가지 기능과 유사하다. 대만의 역학자 반자단(潘子端, 필명:화제관주(花堤館主))은 대립구조로 이루어진 융의 기능 유형 네 가지 즉, 사고-감정, 감각-직관과 명리학의 십성과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 사고는 관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사상파(思想派)라 하였고, 반대 극에 위치한 감정은 식상과 관련지어 감정파(感情派)라 하였다. 감각은 재성과 관련지어 지각파(知覺派), 직관은 인성과 관계지어 직각파(直覺派)라 하였다(박주현, 1996). 반자단은 융의 심리학과 사주명리학 간의 관련성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나남임, 2010; 문송희, 2008; 정하룡, 2009).

최근 국내연구들에서도 사주명리학과 MBTI 성격과의 관련성을 비교 연구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석란, 2006; 나남임, 2010; 정하룡, 2009).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MBTI성격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이 많은 부분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간, 천간, 월지와와의 관계를 MBTI성격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주의 주된 글자인 ‘용신’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용신’은 사주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글자로 주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간명을 하게 된다. 사주 내에서 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용신의 8가지 성격유형은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용신이라는 개념이 융의 심리유형론에서의 기능유형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라, 본 연구자는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의 상관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비교적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소개하고, 사주명리학에서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사주명리학의 성격이론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로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1-1. 내향감각과 정재(正財)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1-2. 외향감각과 편재(偏財)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1-3. 내향직관과 편인(偏印)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1-4. 외향직관과 정인(正印)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1-5. 내향사고와 편관(偏官)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1-6. 외향사고와 정관(正官)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1-7. 내향감정과 식신(食神)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1-8. 외향감정과 상관(傷官)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 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에서는 사주명리학에서 나타나는 성격 중 용신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중심으로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MBTI 이론 중에서도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설명하는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주명리학과 음양오행론, 십성에 대한 이론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8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MBTI의 성격유형을 주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한 8가지 유형을 살펴본 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사주명리학

#### 1) 사주명리학의 정의

명리는 ‘명(命)’자와 ‘리(理)’자가 결합된 단어이다. 풀어서 말하면 명에 대한 이치이다. 다시 말해 한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 대한 이치이다. 명리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명(命)’이라는 단어를 먼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품사는 명사이며 ‘목숨’이라고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명리(命理)’의 사전적 의미는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라고 나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의 인생과 자연의 법칙과 개별적 또는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리학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인생과 자연의 법칙 및 개인과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명리는 사주뿐만 아니라 관상, 주역, 손금, 기문둔갑, 자미두수, 육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사주에 관한 학문인 명리학은 이들과 구분하여 사주명리학이라고 정의하였다(조규문, 2004).



이용준(2004)은 사주학이란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출생 연월일시를 천간 지지 여덟 글자로 치환하여 그 간지에 음양과 오행을 배정하여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의 원리에 의해서 한 개인의 운명을 판단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김경희(2007)는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운명이 있으며, 그 운명을 바탕으로 살아가다 보면 처해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성의 작용으로 인한 표정이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본성의 작용이 사주팔자이고,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그 이치를 연구하여 밝혀나가는 학문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날의 생년월일시의 사주팔자를 통해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성격, 적성, 인간관계, 운명 등을 밝히는 원리를 담고 있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주팔자란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주로부터 받는 기운(에너지)을 음양오행의 부호로 나타낸 것이다. 태어난 년·월·일·시에 해당하는 60갑자를 아래의 표 순서대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배치하고 ‘①년간 ②년지 ③월간 ④월지 ⑤일간 ⑥일지 ⑦시간 ⑧시지’라고 한다. 년간과 년지가 합쳐져서 년주를 이루고, 월간과 월지가 합쳐져서 월주를 이루고, 일간과 일지가 합쳐져서 일주를 이루고, 시간과 시지가 합쳐져서 시주를 이룬다. 년주, 월주, 일주, 시주의 4개의 기둥(四柱)으로 세우면 전체 여덟 글자(八字)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11년 6월 16일 오전11시에 태어나는 사람은 신묘년, 갑오월, 임인일, 을사시에 해당한다. 이것을 사주팔자의 여덟 글자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1> 사주팔자의 예

	시주(時柱)	일주(日柱)	월주(月柱)	년주(年柱)
천간 (天干)	을(乙).....⑦	임(壬).....⑤	갑(甲).....③	신(辛).....①
지지 (地支)	사(巳).....⑧	인(寅).....⑥	오(午).....④	묘(卯).....②

오늘날의 사주명리학은 일간 위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주명리학이다. 이를 만든 이가 송대(宋代)의 ‘서거이’이며 호가 ‘자평’이라 자평명리학이라고도 부른다. 이전의 명리학인 삼명학과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둘을 통칭하여 사주명리학이라고도 한다. 자평명리학의 생겨난 배경에는 육임(六壬)의 고수인 곽박(郭璞)의 영향을 받아 육임의 월장(月將)원리를 적용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서양의 점성술이 인도의 점성술에 영향을 끼쳤고, 인도의 점성술 가운데 베딕 점성술이 당나라 때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오성술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자평명리학이 오성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용준, 2004; 전정훈, 2011). 따라서 자평명리학이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사주명리학이다.

<표Ⅱ-2> 사주명리학의 구분

명칭	구분	핵심 내용	정 의
사 주 명 리 학	삼명학	년본 일주	춘추전국시대에 활동하던 낙록자와 귀곡자를 시원으로 하여 당나라 때까지 유행하던 고법명리학.
	자평학	일간 위주	송나라 때 육임학의 월장원리를 사주에 적용한 서거이(호: 자평)에 의해 새롭게 창안된 신법명리학.



## 2)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

음과 양의 상대적 개념인 ‘음양설’과 만물의 생장이론인 ‘오행설’은 본래 각기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오다가 춘추전국시대와 한대(漢代)를 거치며 ‘음양오행론’으로 통합 정리되면서 우주와 대자연이 순환하는 원리와 각종 사물의 규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소재학, 2005).

우주 만물의 변화원리는 한 마디로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른다. 이를 한동석(2001)은 음양오행의 운동법칙은 우주의 변화법칙이며 만물의 생사법칙이며 정신의 생성법칙이므로 우주의 모든 변화가 이 법칙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음양설과 오행설은 천문, 역산, 지리, 농업, 의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하여 자연계의 각종 현상을 해석가능하게 한다.

### (1) 음양(陰陽)이론

음양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허신의 설문해자(說問解字, 총 15편으로 후한때 편찬됨)에서는 최초 산의 남쪽, 강의 북쪽 등 태양이 비치는 것을 양(陽), 그늘진 것을 음(陰)이라 하였다. 이렇게 태양과 관계된 밝음과 어둠의 표현으로 시작되어 해가 뜬 낮을 양(陽)으로 해가 진 밤을 음(陰)으로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명재남, 2007; 소재학, 2005).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일컬어 도(道)라 한다. 이는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로, 음과 양이 만나 조화를 이루면 창조가 일어난다(전창선·어윤희, 1999)고 하였다.

주희(朱熹)는 “음양이란 단지 하나의 기(氣)로서 음의 기운이 흐르면 즉, 움직이면 곧 양(陽)이 되며 양의 기운이 엉기고 모이면 곧 음(陰)이 되니 별개의 두 개로 존재하여 서로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朱子文集』 卷50,

大抵陰陽只是一氣，陰氣流行卽爲陽，陽氣凝聚卽爲陰，非直有二物相對也)”고 하였다(명재남, 2007). 음양을 절대적이고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변적인 상대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물과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음양의 개념을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다음 <표Ⅱ-3>은 사물의 음양 속성을 대략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Ⅱ-3> 사물의 음양 속성 분류

양(陽)	하 늘	낮	봄 · 여 름	남	홀 수	밝 음	건 조	뜨 거 움	상 승	외 향	운 동
음(陰)	땅	밤	가 을 · 겨 울	여	짝 수	어 두 움	습 기	차 가 움	하 강	내 향	정 지

## (2) 오 행(五行)이론

오행이란 음양이 운행하는 과정이 다섯의 차별성을 나타내면서 순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윤창열, 1992). 즉 음양은 다시 나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작용을 일으켜 다섯 개의 새로운 성질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우주 운동의 기본적인 본질이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오행이다. 오행은 ‘나무’나 ‘불’과 같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목화토금수의 실체에는 형태와 성질의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행 또는 법칙인 목·화·토·금·수는 단순히 물질만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요 상(象, 이미지)만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하와 형이상을 종합한 형과 상을 모두 대표하고 상징하는 부호인 것이다 (한동석, 2001).

시대를 거치며 현재 일반화된 오행 각각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木)은 ‘뻗어 나가는 기상’을 특성으로 하며, 자연계의 사물과 그 변화현상으로 보자면 ‘나무’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봄’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새벽과 아침’에 해당한다. 둘째, 화(火)는 ‘분산되는 기상’을 특성으로 하며, ‘불’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여름’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오전과 한낮’에 해당한다. 셋째, 토(土)는 최초 ‘심고 거두는 특성’에서 의미가 발전해, 현재 ‘중앙, 중간’을 특성으로 하며, 물상으로는 ‘흙과 산’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늦여름, 환절기’에 해당한다. 넷째, 금(金)은 ‘내면으로 통일하여 변화하는 기상’을 특성으로 하며, ‘쇠나 돌’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가을’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오후’에 해당한다. 다섯째, 수(水)는 ‘적시고 내려가고 수축하는 기상’을 특성으로 하며, ‘물’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겨울’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밤’에 해당한다(소재학, 2008).

오행을 좀 더 상세히 사물들에 대입해 보면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오행의 속성 분류

오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방위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
계절	봄	여름	장하, 사계	가을	겨울
시간	아침	낮	오후	저녁	밤
반응	탄생	성장	변화	수확	저장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색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오관	눈	혀	입	코	귀
오장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육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정서	분노	기쁨	근심	슬픔	두려움
오덕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수리	3, 8	2, 7	5, 10	4, 9	1, 6
천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지지	寅, 卯	巳, 午	辰, 戌, 丑, 未	申, 酉	亥, 子

### (3) 십간(十干)과 십이지지(十二地支)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천간을 양, 하늘기운이라고 전제한다. 하늘의 기운은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작용을 하므로 사주풀이를 해 보면 천간에서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반면에 지지는 음, 땅의 기운이라고 전제한다. 지지는 천간의 뿌리이며 천간에 비해서

매우 느린 변화를 보인다. 지지의 글자들에는 숨어있는 천간의 기운들이 혼합되어 섞여있는데, 이것을 지장간(支藏干)이라고 하며 이것은 지지의 기운이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함인근, 2007). 뿌리 없는 기운이 힘을 오랫동안 제대로 쓸 수 없고, 실제로 활동하지 못하는 에너지만으로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본다.

천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열 글자에 의해 정해지며 열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십간이라 한다. 지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십이지지(十二地支)라 한다. 십간과 십이지지를 다시 음양오행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십간의 음양오행 분류

십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오행	木		火		土		金		水	
음양	+	-	+	-	+	-	+	-	+	-

<표 II-6> 십이지지의 음양오행 분류

십이지지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오행	水	土	木	木	土	火	火	土	金	金	土	水
음양	+	-	+	-	+	-	+	-	+	-	+	-

또한 지지에 숨어있는 천간기운인 지장간은 다음 <표 II-7>과 같다.

<표 II-7> 지장간

지지 장간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여기(餘氣)	壬	癸	戊	甲	乙	戊	丙	丁	戊	庚	辛	戊
중기(中氣)		辛	丙		癸	庚	己	乙	壬		丁	甲
정기(正氣)	癸	己	甲	乙	戊	丙	丁	己	庚	辛	戊	壬

#### ① 십천간의 성질

갑(甲)은 양의 성질을 가진 목기운이다. 큰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형상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꼳꼳하고 장엄하며 솟구쳐 오르는 기상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을(乙)은 음의 성질을 가진 목기운이다. 수풀이나 식물의 뿌리 또는 넝쿨 나무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면서 억세다. 융합하는 기운이 있고 끈질긴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병(丙)은 양의 성질을 가진 화기운이다. 태양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주만물을 넓고도 끝없이 비취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강렬하고, 위에서 아래를 넓게 비취주기 때문에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배움, 기상을 느끼게 해준다.

정(丁)은 음의 성질을 가진 화기운이다. 등불이나 촛불에 비유한다.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으며 태양과 달리 규모가 작고 한정된 공간만을 밝힌다. 은은하고 온화하면서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해준다.

무(戊)는 양의 성질을 가진 토기운이다. 지구나 대지(大地)에 비유한다. 무한하게 펼쳐진 넓은 대지와 같은 형상의 기운이라 포용력 있고 푸근하며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다.

기(己)는 양의 성질을 가진 토기운이다. 지구나 대지(大地)에 비유한다. 무한하게 펼쳐진 넓은 대지와 같은 형상의 기운이라 포용력 있고 푸근하며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다.

경(庚)은 양의 성질을 가진 금이다. 큰 바위나 커대한 철광석에 비유한다. 강건하고 굳센 기운과 기상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위엄과 위압감 그리고 강력함과 완고함, 믿음을 갖게 하지만 포근하고 따뜻함과는 거리가 있다.

신(辛)은 음의 성질을 가진 금이다. 정교하게 가공된 보석이나 날카로운 칼에 비유한다. 예리함과 섬세하면서도 정밀함을 느끼게 해준다. 간결하고 정확하며 세련된 미를 느끼게 해준다.

임(壬)은 양의 성질을 가진 수기운이다. 넓은 바다나 커다란 호수에 비유한다. 세상의 온갖 찌꺼기, 어려움을 다 수용하고 이를 정화해서 되돌려 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모든 것을 한 번에 앗아가는 공포와 위압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기운이다.

계(癸)는 음의 성질을 가진 수이다. 이슬이나 특정한 용기에 담긴 물에 비유한다. 가장 작고 무력한 기운이지만 드러내지 않고도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친화력과 함께 호기심을 갖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탐구성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십천간의 성질을 요약하면 다음<표 II-8>과 같다.



<표 II-8> 십천간의 성질

천간	성 질
甲	숲의 큰 나무. 장엄하고 솟구쳐 오르는 기상, 중후함, 고고함, 높은 이상, 선비정신, 독립적, 학자, 교육자
乙	풀. 부드러움, 억세고 끈질김, 내적 성숙, 지구력, 강한 의지, 도전정신, 유연함, 심리, 무용, 체조
丙	태양. 강열하고 넓게 비춤, 베풀, 지배, 따뜻한 배려, 활발함, 생기 발랄, 예의범절, 고위공직, 장군
丁	촛불. 고요함, 한정된 치솟음, 소망, 희망, 이성적, 신앙심, 예술 창작, 정신수양, 배려, 종교인, 의료, 법조
戊	대지. 넓고 포근함, 고정, 진리, 변함없음, 포용력, 공감 형성, 대기만성, 대범함, 전문가, 관리자
己	개간지. 고정, 한정, 제약, 고독, 안정적, 명확성, 공명正大, 원칙주의, 공평함, 공무원, 중간관리자, 판매
庚	바위·철. 웅장함, 개혁, 강건함, 굳건함, 냉정함, 사리 분별, 엄숙주의, 엄정함, 사법, 군인, 경찰, 의료
辛	주옥·보석·칼. 치밀, 냉정, 예리함, 냉철한 판단, 예리함, 치밀 섬세, 완전무결, 체계적, 회계, 설계, 수사
壬	대양, 수렴, 정화, 평온, 은은한 영향력, 수용성, 평정 유지, 정화능력, 재할, 종교계통, 외교관
癸	이슬. 영롱함, 영민함, 호기심, 탐구, 애교 지략, 지모, 호기심, 자기만족, 탐구능력, 고독함, 시인, 소설가, 대학교수

## ②지지의 성질

자(子)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한 상태를 나타낸다. 자시(子時)는 하루 중에서 가장 깊은 밤을 뜻하며, 일 년 중에서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에 해당한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양의 기운이 생기게 된다.



축(丑)은 아직은 음기운이 강한 상태이다. 축시(丑時)는 음기운이 강해 숙면에 빠져 있는 때를 뜻하며, 축월은 일 년 중에서는 냉기가 땅속 깊이 까지 파고드는 시기이다.

인(寅)은 양의 기운이 들어와서 동이 트려는 새벽에 해당하며, 일 년 중에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 비유한다. 이 시기가 되면 사람도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만물도 싹을 틔울 준비를 한다.

묘(卯)는 목기운이 가장 강해진다. 시간상으로는 동이 튼 아침으로, 일 년 중에는 봄기운이 가장 왕한 시기이다. 묘시가 되면 사람은 일어나서 일 할 준비를 하고, 묘월은 새싹은 땅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진(辰)은 만물이 힘을 다해 자라나는 시기가 된다. 진시(辰時)는 활기찬 아침, 일 년 중에는 봄기운이 끝나가고 여름을 맞으려는 시기이다. 진시가 되면 사람은 일터로 나가고, 진월이 되면 새싹은 땅을 뚫고 올라와 성장을 하는 시기이다.

사(巳)는 양기가 왕성해지는 때이며, 일 년 중에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사시가 되면 사람은 목표를 갖고 일에 열중하며, 사월이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오(午)는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한 상태를 나타낸다. 오시(午時)에 태양이 하늘의 중앙에 있으며, 일 년 중에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에 해당한다. 하지를 기준으로 하여 음의 기운이 움튼다.

미(未)는 아직은 양기가 남아 있는 때이다. 미시(未時)가 되면 사람은 가장 열심히 일할 때이고, 일 년 중에는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에 해당하며, 열매는 맛이 들기 시작한다.

신(申)은 음기운이 비로소 그 뜻을 펼치는 시기이다. 신시(申時)는 하루의 해가 기울어 가는 오후로 사람들도 하던 일을 마감하려 하는 때이고,

일 년 중에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에 해당하며 만물도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유(酉)는 만물이 움츠러들고 열매가 모체로부터 분리하는 시기이다. 유시(酉時)는 해가 지는 때를 나타내며, 일 년 중에는 가을의 가운데로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다. 유시(酉時)가 되면 사람은 하루의 일을 정리하고 퇴근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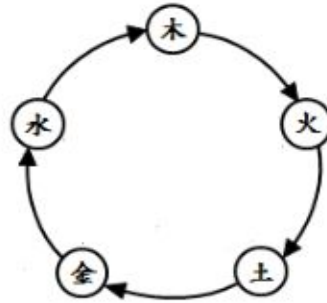
술(戌)은 만물의 기운이 약해지고 소멸하는 때이다. 술시(戌時)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때이며, 일 년 중에는 늦가을을 가리킨다. 술시가 되면 사람은 하루를 정리하는 때이고, 술월은 작물의 추수를 마친 시기에 해당된다.

해(亥)는 만물의 일대는 끝났지만 그 씨앗이 거두어져 저장되는 때이다. 해시(亥時)는 밤이 깊어가는 때이며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이고, 일 년 중에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 (4) 오행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

오행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극하기도 하는데 서로 도와주는 작용을 상생, 서로 극하는 작용을 상극이라고 한다. 상생의 작용을 보면 木은 火를, 火는 土를, 土는 金을, 金은 水를, 水는 木을 생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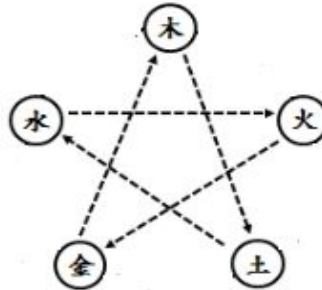
[그림 II-1] 오행의 상생

<표 II-9> 오행상생의 법칙

오 행 상 생	자연 현상의 적용의 예
목생화(木生火)	나무는 타서 불을 만든다.
화생토(火生土)	불이 타고 난 재가 곧 흙이 된다.
토생금(土生金)	흙이 모여 바위가 되고, 땅에서 쇠가 난다.
금생수(金生水)	광물이 물이 되고, 바위틈에서 물이 난다.
수생목(水生木)	물은 나무를 키워 준다.

상극의 작용을 보면 木은 土를, 土는 水를, 水는 火를, 火는 金을, 金은 木을 극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2]와 같다.



[그림 Ⅱ-2] 오행의 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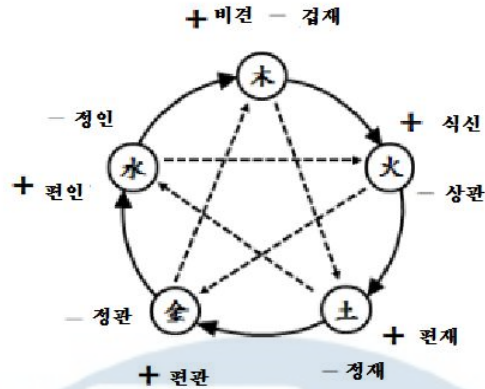
<표 Ⅱ-10> 오행상극의 법칙

오 행 상 극	자연현상의 적용의 예
목극토(木剋土)	나무는 땅을 뚫는다.
토극수(土剋水)	흙은 물을 막는다.
수극화(水剋火)	물은 불을 끈다.
화극금(火剋金)	불은 쇠를 녹인다.
금극목(金剋木)	쇠는 나무를 자른다.

### 3) 십성(十星)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오행의 기운이 각각 음과 양의 기운을 띄게 되면 10가지의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십성(十星)이라고 한다.

십성의 예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甲목(+) 일간의 십성의 예

위의 그림은 십성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것으로 사주에 있어서 일간이 甲목(+)일 때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양의 기운을 가진 甲목이나 지지의 인목을 비견(比肩)이라고 하고, 같은 오행의 기운을 띄고 있지만 음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을 두고 겁재(劫財)라고 한다.

같은 양의 기운을 가졌으나 火기운인 丙화나 지지의 巳화를 두고 식신(食神)이라고 하고, 음의 기운을 가진 丁상화나 지지의 午화를 두고 상관(傷官)이라고 한다. 지지의 子午 巳亥는 정기의 기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양의 기운을 반대로 해석한다. 즉 원래 子午는 양의 기운이나 음의 기운으로 해석하며, 巳亥는 음의 기운이나 양의 기운으로 해석한다.

같은 양의 기운을 가졌으나 土기운인 戊토와 지지의 辰토, 戌토를 두고 편재(偏財)라고 하고, 음의 기운을 가진 己토와 丑토, 未토를 두고 정재(正財)라고 한다.

같은 양의 기운을 가졌으나 金기운인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라고 하고, 음의 기운을 가진 후금이나 지지의酉금을 두고 정관(正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의 기운을 가졌으나 수기운인 壬수와 지지의 亥수를 편인(偏印)이라고 하고, 음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를 두고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受)라고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 <표Ⅱ-11>과 같다.

<표Ⅱ-11 십성의 구분>

십 성	구 분
비견(比肩)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은 것
겁재(劫財)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
식신(食神)	일간이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상관(傷官)	일간이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편재(偏財)	일간이 극(剋)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정재(正財)	일간이 극(剋)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편관(偏官)	일간을 극(剋)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정관(正官)	일간을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편인(偏印)	일간을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정인(正印), 인수(印受)	일간을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표Ⅱ-12 십성조건표>

인수	편인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식신	겁재	비견	십성 干支 日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干	甲
子	亥	酉	申	丑未	辰戌	午	巳	卯	寅	支	
壬	癸	庚	辛	戊	己	丙	丁	甲	乙	干	乙
亥	子	申	酉	辰戌	丑未	巳	午	寅	卯	支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干	丙
卯	寅	子	亥	酉	申	丑未	辰戌	午	巳	支	
甲	乙	壬	癸	庚	辛	戊	己	丙	丁	干	丁
寅	卯	亥	子	申	酉	辰戌	丑未	巳	午	支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干	戊
午	巳	卯	寅	子	亥	酉	申	丑未	辰戌	支	
丙	丁	甲	乙	壬	癸	庚	辛	戊	己	干	己
巳	午	寅	卯	亥	子	申	酉	辰戌	丑未	支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干	庚
丑未	辰戌	午	巳	卯	寅	子	亥	酉	申	支	
戊	己	丙	丁	甲	乙	壬	癸	庚	辛	干	辛
辰戌	丑未	巳	午	寅	卯	亥	子	申	酉	支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干	壬
酉	申	丑未	辰戌	午	巳	卯	寅	子	亥	支	
庚	辛	戊	己	丙	丁	甲	乙	壬	癸	干	癸
申	酉	辰戌	丑未	巳	午	寅	卯	亥	子	支	



## 2.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사주명리학에서는 십성을 통하여 타고난 성격, 인간관계, 사회적 성취 및 직업, 적성과 운의 길흉 등 인간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한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성격 역시도 이 십성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십성이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십성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인수)를 말하며, 이 십성은 천간과 지지에 모두 고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주명리학의 십성 중에서 8가지만을 성격유형을 나누고자 한다. 비견과 겁재 역시 성격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으며, 이들의 특징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사주 내에서 용신이며, 용신은 사주 주인인 자신의 일간과 같은 성질을 가진 비견과 겁재를 제외하므로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의 8가지를 용신의 성격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주 명조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8가지 성격유형을 비교적 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몇 가지의 성향들이 치우쳐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 사주의 여덟 글자에서 성격적인 특징들이 고루 나타난다고 해도 월지와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드러난 용신의 경우 그 성격적인 특징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한사람을 살펴봐도 다양한 성격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라고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많이 드러나는 독특한 그 사람만의 성격이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을 용신이 드러내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신을 중심으로 8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한 사주명리학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은 음양을 구분하지 않으면 크게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4가지로 구분되며 또한 일간의 음양에 따라 일간과 같은 음양이면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인성은 편인과 정인으로 나뉜다. 식상은 관성과 상극관계이며, 재성과 인성도 상극관계이다. 사주명리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김경희, 2007; 전정훈, 2010; 홍덕건, 2010).

#### (1) 식신(성실한 연구원)

특징: 호기심을 가지고 살피고 묻고 파고드는 성향이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풍요의 신(神)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월지나 일지가 식신이거나 용신이 식신인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낙천적이면서 게으르고, 놀고 먹기를 좋아한다. 성격이 온후하고 예의범절이 있고, 사회적으로 원만하며 처세를 잘하고 쾌활하다. 예술성과 음악성을 타고 난 경우가 많고, 다른 성의 경우보다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 많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아주 좋아하면서 힘 드는 일을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이나 몸집이 큰 사람이 많다.

식신이 잘 발달된 사람은 움직임은 없으나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물의 문제점을 정확히 가려낼 줄 알고, 사람을 정확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가려내는 일을 맡거나 인력관리를 하면 아주 능숙하게 해낸다. 관심 가는 것은 살피서 끝까지 파고들어 알아내려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나 길을 잘 찾아내므로 아이디어가 있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과 위기대처 능력이 나온다. 또한 타인과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사려 깊고 정이 많으며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한다.

장·단점: 관찰력, 사고력, 이해력, 추리력, 응용력, 창의성이 있다. 맛과

멋에 대한 특징 파악이 뛰어나다. 문제가 생기거나 막힘이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잘 찾아내어(아이디어를 잘 내고) 위기대처능력이 있고, 눈치가 빨라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여 사람들을 배려한다. 반면에 너무 살피고 파고들며 생각을 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이 많아 결정을 잘못하여 우유부단해진다.

## (2) 상관(임기응변에 능한 달변가)

특징: 자기 표출 욕구가 강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총명하고 영리하며, 동작이 민첩하고 다재다능할 뿐만 아니라, 인정이 많고 언어적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뛰어나며 사교적이다. 농담, 거짓에 능하고 익살스러우면서 남의 흉내를 잘 내거나 표현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남녀 모두 예지력과 창의성·인내심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행의 첨단을 앞서가는 직업과 인연이 많다. 사교적이고 나의 주장이 수용되어야 하며, 표현이 날카로워서 명성·변론을 좋아하며, 내면의 마음을 밖으로 확실하게 표현한다.

대체로 성격이 급하면서 변덕, 시기, 질투가 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많다. 또 어딘지 모르게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도 많고, 욕하는 성격이 있으면서 자존심이 강하여 안하무인인 경우도 많다.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칭찬에 약하며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다. 괴팍하며 변덕이 심하면서 주사가 있고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패기가 있지만 상관의 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추진력은 좋으나, 실증을 잘 내고 일의 마무리를 흐지부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속박을 싫어하고 반항심도 강하며, 자신을 억압하려는 사람에게는 무섭게 대항한다. 주위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장·단점: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대응하는 융통성이 있다. 뛰어난 표현력이 예술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타인을 선동하는 설득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며 열정이 있고 낙천적이다. 반면 성급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표피적이고 방만하며 수다스럽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으로 신뢰감이 떨어지고 조절력이 없어진다. 생각 없이 하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 (3) 편관(핵심을 파헤치는 수사관)

특징: 주관적인 틀이 강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억누르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에 맞추어 주는 성향이다. 편관은 지나치게 나를 누르는 성향이다. 항상 조직의 틀 속에서 자기를 보며 그 속에서 자기를 맞추려한다. 그래서 조직과 남의 평가를 중시한다. 엄격한 자기 절제력으로 사회적 규율을 잘 지킨다.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며, 인내심도 강하여 맡은 바 일을 잘 해낸다. 기억력이 뛰어나다. 냉정하고 단호한 면이 있어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하여 한 순간에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직감이 잘 발달되어 있어 영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며, 꿈이 잘 맞고 예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으므로 공익성의 일에 헌신적이다. 남들이 웃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망가지는 행동도 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대의를 베풀게 되어 영웅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사욕보다 공욕에 뜻을 주기 때문이며, 일편단심, 초지일관하며, 개인적 이익은 돌보지 않는다. 없이 살아도 마음만 떳떳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다.

장·단점: 절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어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며 조직 생활을 잘한다. 조직 속에서 봉사를 잘하며 기억력이 필요한 일을 잘한다. 반면 주관적 틀에 얽매어 융통성 없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스스로 참고 맞추어 주다가 너무 참아 병이 생기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지키는 틀의 엄격함이나 상대에게 맞추어 줌을 남에게도 요구하는데 상대가 맞추

어 줌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거나 상대는 참지 않고 나에게 맞추어 주지 않을 때 참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한다. 권위적이고 융통성이 없어 소통이 잘 안 된다.

#### (4) 정관(공정한 재판관)

특징: 합리적인 틀(예절, 질서, 규칙 등의 사회적 규범), 명예, 남의 평가, 체면 등을 중시하는 성향이다. 나를 적절하게 눌러서 합리적인 원칙과 규범에 따라 균형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조직생활에 적합한 성향이다. 원리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성을 지향하며 대의명분을 중요시한다. 또한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여 형식과 외관이 번듯하여야 하며 술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지위와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다.

사주 내에 정관이 있으면 일단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고 믿고 맡겨도 불안하지 않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공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준법정신과 책임감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많다. 긍지가 높고 강한 책임감으로 진퇴의 판단이 빠르고, 형평에 맞는 원칙을 고수한다. 관료사상이 깊고 상명하복의 충성심과 시비를 판단하는 공정심과 이해심이 많으며 성실하다. 깔끔하고 결백하여 반발하거나 반항심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기억력이나 관찰력이 뛰어나다. 신중하기 때문에 소심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편관과는 달리 타협의 여지가 있어 융통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단점: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어서 조직생활을 잘 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신의가 있으며 약속을 잘 지키고 남의 모범이 되려 한다. 반면에 지나치게 규칙과 체면에 얽매어 지루하고 갑갑하다. 변화나 위기 상황에서는 대응력이 떨어진다.

(5) 편재(판단력이 우수한 사업가)

특징: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기 식으로 분류하여 내 뜻대로 펼치고 디자인 하려는 성향이다. 투자해서 크게 벌어들이거나 사업을 해서 재물을 한꺼번에 많이 벌어들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장사꾼이나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성격이 착하고 어질고, 명랑하며 배풀기를 좋아한다. 시원시원하고 화통한 성격으로, 어디에서든 분위기만 좋으면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흥에 겨운 나머지 앞 뒤 생각지 않고 돈을 물 쓰듯이 써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이 많고 의리를 중히 여기고, 주위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하여 좋은 인상을 풍긴다. 재능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며, 활용을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즐겁게 산다.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대중의 기분을 잘 맞추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항상 명쾌하고 활동적이어서 시원스럽다.

특징 파악과 분류 능력이 뛰어나서 디자인하는 예술적 감각이 있다.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하여 자기 식으로 디자인하여 기억하므로 단정적이고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바꾼다. 크게 펼치고 싶어 하므로 재물에 대해서 씹씹이가 크고, 정리정돈과 계획도 큰 범주에서 실행한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펼치려는 기질이 강하여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강요하거나 간섭하면서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독재성향이 있다.

장·단점: 분류를 잘하고 분류한 것을 배치하고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예술적 감각과 재능(꾸미기, 만들기, 그리기, 글쓰기, 요리 등)이 있다. 성격이 호방하다. 반면에 자기 식대로 분류·배치하여 마음대로 하려 하므로 독재적이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자기 분류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변화 상황을 무시하여 손해를 보기도 한다. 생각을 잘 안 바꾼다. 펼치고 싶은 욕구로 말을 길게 하고 글도 길게 쓴다. 돈 씹씹이가 헤프고 크게 벌고 싶



으므로 투기 성향이 있다. 빨리 자신의 역량이나 투자보다 큰 결실을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지쳐 포기한다.

#### (6) 정재(치밀한 전략가)

특징: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정확성과 확실성이 있으며, 직장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일하며, 시간약속을 정확하게 지킨다. 보수적이고 도덕심이 강하고 남과 다투는 것을 싫어한다.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적이면서 깐깐하고 소심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일을 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의 기준에서 판단을 내린 후 계획을 세우며, 효율성을 따진다. 결과에 관심이 많고 시작한 일은 빨리 결실을 보고 싶어 한다. 모든 일에 계산을 하며 주고받음이 분명하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고집이 강하며,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사기도 한다. 입신출세하기 보다는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성공의 길을 닦아 명성을 얻고자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나 결실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조급하다. 결벽증이 있거나 사람을 잘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고 소심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 수줍음이 많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귀는 경향이 강해 친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자신의 속내를 보이지 않으려 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친한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리정돈을 잘하며 알뜰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므로 재물에 대해서도 투기는 관심이 없고 저축을 잘한다. 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장·단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지향하므로 맡겨진 일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잘하며 결실을 잘 맺는다. 알뜰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며 돈도 효율적으로 쓰며 재물관리를 잘 한다. 반면 안정성을 잃을까봐 항상 걱정하고 인색하다. 계산에 간혀서 결과를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다가 오히려 일을 못하거나 선택을 잘 못한다. 결과나 결실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빨리 결과나 결실에 도달하고 싶어 조급해하다가 쉽게 지친다. 실패할까 두려워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소심하다. 지나치게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 자신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여 자기 발전을 막는다. 정재가 지나치면 자기 실속만 챙기므로 주위에 친밀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 (7) 편인(신비주의 철학자)

바깥일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다. 자기만의 치우친 기준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여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들으려 하므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종교나 명리학, 명상 등과 같은 신비주의나 초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문장력이 뛰어나고, 사고력, 창의력,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고, 지능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으며 잔머리를 쓰는 사람도 많다. 논리적이고 침착하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해놓은 일을 되짚어 검토하는 성향이 강하다. 집단이나 조직 속에서 남의 지배를 받거나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며, 무리를 떠나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마음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아 그 심중을 알기 힘든 사람이다. 고독한 마음의 소유자이며, 추상적이고 보수적이며 불신감과 의심이 많고, 깊은 통찰력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

장·단점: 세상사에 무심하므로 현실적인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며 현실을 뛰어넘어 자기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 반면에 자기 세계에 빠져 유행에 둔감하거나 남의 상황이나 말에 무관심하므로 소통이 어렵고, 세상사에 대한 무관심함과 귀찮음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되고 공상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한 채 살아갈 위험이 있다. 무관심함으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적당한 때를 놓치기도 한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

(8) 정인(인수)(부모 같은 선생님)

특징: 어머니처럼 잘 받아들이고 잘 길러 주는 성향이다. 나를 낳고 길러 주는 관계로 어머니에 해당된다.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며 자비심이 있고, 학문과 예술계통에 소질이 있다. 모성본능이 강하여 인자한 어머니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어머니의 기본적 특성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며 나를 격려해주는 든든한 지원자이다. 남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성향이 길러주는 성향으로 연결된다. 선입견 없이 남의 말이나 충고, 새로운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푸근하다. 정인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바깥의 상황에 쉽게 동화되므로 감정이입이 잘 된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중요하다.

사주 내에 정인이 있으면 대체로 유연하면서 조심스럽고 사려가 깊어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내는 능력이 있다. 조용하고 차분하여 대인의 품격을 갖추었으며, 심성이 넓고 포용력이 대단하며, 자상하면서도 때로는 냉정한 인상을 주지만 애정은 남보다 강하다.

장·단점: 어머니처럼 잘 받아들여주므로 주위 사람들이 좋아한다. 반면에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속기 쉬운 단점이 있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므로 진취적인 면이나 적극적인 면이 부족하여 수동적이며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타적이다. 사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조절하거나 자르는 것을 하지 못하여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우유부단하다. 인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불장군이 되어 타협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을 요약하면 다음 <표Ⅱ-13>과 같다.



<표Ⅱ-13>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의 성향과 기능

	성향	기능
식신	성실한 연구원: 호기심을 가지고 살피고 묻고 파고드는 성향.	관찰, 사고, 이해, 추리, 창의성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이 많아 우유부단하며, 결정을 잘 못한다.
상관	임기응변에 능한 달변가: 자기 표출 욕구가 강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하며 융통성이 있다. 타인을 설득하며,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반면, 과장된 표현으로 신뢰감이 떨어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편재	판단력이 우수한 사업가: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의 뜻대로 디자인 하려는 성향.	예술적 감각과 재능이 뛰어나며, 성격이 호탕한 반면, 독재적이고 소통이 어렵다. 또한 돈 씹씀이가 험프고, 투기 성향이 있다.
정재	치밀한 전략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	정확성과 확실성이 있으며,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반면, 미리 계산하거나 불안으로 인해 인색하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심하다.
편관	핵심을 파헤치는 수사관: 주관적인 틀이 강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억누르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성향.	절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어 조직 생활을 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반면, 주관적 틀에 얽매어 융통성이 없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정관	공정한 재판관: 합리적인 틀, 명예, 남의 평가, 체면 등을 중시하는 성향.	합리적이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신의가 있으며 남의 모범이 되려는 반면, 지나치게 규칙과 체면에 얽매어 지루하고 갑갑하다.

편인	신비주의 철학자: 바깥일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	세상사에 무관심하므로 현실을 뛰어넘어 자기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반면, 자기세계에 빠져 둔감하거나, 무관심으로 세상과의 소통이 어렵다.
정인	부모 같은 선생님: 지혜롭고 자비심 있고, 어머니처럼 잘 받아들이는 성향.	모성본능으로 인하여 주위사람들의 편안함과 믿음을 얻는 반면, 수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속기 쉬우며,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타적이다.

## 2)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을 찾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주의 일간을 포함하여 사주명조 내에서 나타나는 모든 십성은 그 성격을 고루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글자가 있고 특히 용신에 해당하는 글자는 한 개인의 성격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드러낸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은 바로 이 용신을 위주로 한다.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일 때는 천간에 떠 있는 글자 중에서 쓸 자(字)를 찾는다. 사주간명을 통해 성격을 해석할 때는 용신을 중심으로 천간에 드러난 글자들과 지지의 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 개인의 성격을 설명한다.

### (1) 사주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법

먼저, 월지를 살펴 월지의 글자를 본성으로 본다. 월지의 십성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월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면 모두 용신이며 이를 사주 주인의 타고난 성향으로 본다. 지장간에는 두 세 개의 천간의 글자를 담고 있는데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드러난 것은 모두 용신이므로 이들 모두가

타고난 주요한 성격의 요소인 성향에 해당한다.

셋째, 사주의 주인은 일지 글자의 십성에 따라 결심을 하게 된다고 본다. 십성의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지만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일지의 십성을 드러낸다고 본다.

넷째, 마지막으로 사주에서 천간에 드러난 용신이 아닌 글자들은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지지의 배경에 해당하는 글자들 또한 사주명조 주인의 성격을 살펴봄에 있어 참작하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 (2) 사주간명을 통한 성격 해석의 예

2011년 10월 24일 오전10시에 태어나는 사람은 신묘년, 무술월, 임인일, 을사시에 해당한다. 이 사람의 사주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4> 사주명리학의 성격간명표

천간		시	일	월	년
	특징	영향	주인, 나	본성 (용신)	본성 (용신)
		乙	壬	戊	辛
	성격	상관		편관	정인
지지	특징	배경	결심	본성 (용신)	배경
		巳	子	戊	卯
	성격	편재	겁재	편관	상관
	지장간			辛丁戊	

(▶강하게 드러나는 성격을 순서대로 보면 편관→정인→상관→편재 순이다.)

戊월에 태어난 壬수이다. 본성은 월지 戊토 편관으로 이 戊토의 지장간 속에 담겨 있는 천간의 글자들 辛丁戊가 천간에 나타나면 용신으로 본다. 壬수의 입장에서 辛금은 정인, 丁화는 정재, 戊토는 편관에 해당한다. 이 중 월지장간에서 천간에 나타난 辛금과 戊토는 용신이라 이 사주명조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丁화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타고난 성격이라 대·세운에서 만나게 되면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용신을 기본되는 성향, 즉 본성으로 보게 되므로 戊토 편관이 가장 기운이 강하며, 辛금 정인 역시 지장간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용신에 해당하여 성격적인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다. 실제 행동을 결심할 때에 있어서는 일지의 子수 겁재의 성격도 드러낸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천간의 乙목 상관의 성격도 드러나며 지지의 巳화 편재의 성격과 卯목 상관의 성격도 참작하여 간명한다. 천간과 지지에 상관이 함께 있으므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상관의 성격도 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주 주인의 성격은 영리하며 직관이 발달되어 있고 예리하고 냉철한 편관의 성격을 주로 드러내지만, 인정 많고 포용력이 있으며 사려가 깊고 유연한 정인의 성격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강한 상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자존심이 강하며, 호기심 많고 상황판단을 잘하면서 말솜씨도 좋고 사교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 MBTI 성격유형

#### 1) C. G. Jung의 심리유형론

심리유형론(Psychological Type)은 스위스 심리학자인 Jung(Carl G Jung, 1875~1961)의 초기이론으로서, 융 자신이 프로이드와의 견해차 때문에 갈등하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견해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계기가 되어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이부영, 2010).

융은 그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적 기능을 몇 가지 특징으로 나눔으로써 정형화된 성격유형의 틀을 최초로 제시한 심리학자이다. 융의 심리유형론은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학설은 아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인식과 판단의 심리적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유형들끼리 한데 묶을 수 있다고 보았다(이부영, 2010; 한국MBTI연구소, 2010)

융은 심리유형론에서 마음의 기능을 인식과 판단의 두 기능으로 나누어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적 정신작용을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고와 감정을 합리적 기능으로, 감각과 직관의 두 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이라고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이 두 쌍의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대립된다. 정신적인 기능들이 대칭된다고는 하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대칭적인 요소들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의 정도도 사람마다 모두 다른데다, 한 개인이 나타내는 성향을 보더라도 항상 한쪽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 반대의 기능들이 발현되기도 한다. 이런 네 가지 기능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내향적, 외향적)를 취하는가에 따라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있다(한국MBTI연

구소, 2010).

대칭 기능들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4] 융의 이론에 따른 정신의 4기능

#### (1) 일반적 태도유형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는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구별은 그 사람의 태도가 객체를 주체보다 중요시하면 그는 외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객체보다도 주체를 중요시하면 그는 내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외향형, 내향형이란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가 각각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통해서 거의 하나의 생활상의 습성이 되었을 때를 두고 말한다. 이것을 융은 관심의 방향의 차이로 설명한다. 외향형에서는 심리적 에너지로서의 리비도(Libido)가 바깥세상, 다른 사람 등 객관세계로 향하여 흐르는 데 비해서, 내향형에서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안에 간직하려고 한다. 내향, 외향의 두 태도상의 유형은 어느 집단이나 종족, 또는 시대에 특수한 유형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며 어렸을 때 이미 본능적으로 구별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경향인 것 같다고 융은



말한다(이부영, 2010).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다 관심을 쏟는다. 외향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외부 세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환경에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대하고 싶어 한다. 습관적으로 외향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외향과 관련된 특성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사람은 부단히 외부 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고 행동지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솔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다.

내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한다. 내향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자기 내부 세계의 개념과 관념이다. 습관적으로 내향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내향과 관련된 특성을 발달시킨다. 즉 마음속의 개념과 관념을 분명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일시적인 외부사건보다는 지속적인 개념을 더 신뢰하며, 사려 깊고 주위와 떨어져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고독과 사생활을 즐긴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2009).

## (2) 정신의 4기능(사고, 감정, 감각, 직관)

감각(S)이란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인식방법을 말한다. 감각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인식되므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감각적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므로 실질적이며 유용한 정보에 관심을 둔다. 현실을 중요시하며, 관찰능력이 뛰어나고 상세한 것까지 잘 기억한다.

직관(N)이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거나, 무의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각에 실어놓은 아이디어나 연상들을 구체적인 무엇인가로 해석하게 되는 인식을 말한다. 직관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갑작



스럽게 인식하는 패턴으로, 흔히 직감, 육감이나 예감처럼 불현듯 의식에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직관은, 지극히 단순한 ‘남자의 예감’이나 ‘여자의 직감’에서부터 창조적인 예술이나 과학적인 발견과 같은 최고의 예까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직관적인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현실을 보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상상적, 이론적, 추상적, 미래지향적 또는 창조적인 특징을 발달시킨다.

사고(T)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정신작용을 벌이는 방법이다. 사고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은 감정이나 인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논리적 결과를 도출한다. 즉,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적이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감정(F)은 사물이나 일들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중시한다. 사고가 객관적이라면 감정은 주관적이다.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논리나 분석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친화적이고 따뜻하며 배려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2009; 정명진, 2009).

### (3) 융의 8가지 심리유형

Jung은 그의 심리이론에서 4가지 정신 기능이 두 가지의 다른 태도(외향, 내향)와 조합되어 다음과 같은 8가지 심리유형을 도출해낸다고 보았다.

① 외향적 감정형(EF): 타인과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 한다. 대체로 모든 사람에 대해 우호적이며, 동정심과 인정이 많고 친절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좋아하며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다른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순응한다. 끈기와 인내심이 있으며 양심적이고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② 내향적 감정형(IF): 말수가 적고 조용하나 내면에는 누구보다 인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살펴주고 배려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융통성이 있고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대하며 수용적이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일, 또는 소중한 사람들을 성실히 지키고 보호하려 한다.

③ 외향적 감각형(ES):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 잘 적응하며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는 현실주의자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대하고 수용적이며, 관계에 있어서도 화합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감각적인 대상에 호기심이 많고 물질적인 소유를 즐긴다. 낙천적이며 사교성이 좋고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과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④ 내향적 감각형(IS): 책임감이 강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해낸다.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틀이 짜여진 일들을 수행하는데 탁월하다.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며 매사에 신중하다.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실들을 중요시하지만 자신만의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⑤ 외향적 사고형(ET): 논리적이며 결단력이 있고 사실적인 것들을 조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구체적인 목표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려 한다. 원리원칙과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일 중심이며, 계획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일처리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⑥ 내향적 사고형(IT): 이해력이 뛰어나고 지적호기심이 많으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이면의 원리나 원칙을 밝히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정확하고 철저한 것을 좋아한다. 독립을 추구하여 흔히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대하여 방어적이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며 상처받기 쉽고 친밀해지거나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배려나 친절과 같은 인간미나 사교성은 떨어진다.

⑦ 외향적 직관형(EN): 창의적 재능과 아이디어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통찰력이 있고 열정적이다. 항상 가능성을 추구하며 호기심이 강하여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에너지가 풍부하다. 어려움에 봉착해도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틀이나 형식에 얽매인 일은 극히 싫어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심을 갖고 있다.

⑧ 내향적 직관형(IN): 번뜩이는 영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의 이목이나 시선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다. 곤경에 처해도 오히려 도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 2) MBTI의 이해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 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Katharine Cook Briggs 와 Isabel Briggs Myers에 의해 1900년부터 1975년에 걸쳐 고안되고 개발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다(신정은, 2011).

MBTI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융의 심리적 기능이론 및 인식과 판단의 방향을 결정짓는 융의 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self report)문항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경향들이 하나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심리검사다(신정은, 2011).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김정택, 심혜숙(1991)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성인용 MBTI 자가채점용인 GS는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채점용인 GA는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BTI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더 편안하고 익숙한 행동 및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4가지 선호성 지표로써 사람들의 성격유형을 구별한다. 성격유형 지표는 외향성-내향성(주의집중과 에너지원천과 방향), 감각-직관(정보수집·인식의 방법), 사고-감정(의사결정의 기능), 판단-인식(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행동이행과 생활양식)이다(서동윤, 2011). 각 개인이 선호를 네 가지 지표로 표시하게 되면, 4가지 지표마다 양극을 이루는 2가지의 선호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조합하면 모두 16가지의 MBTI유형이 나온다.

MBTI의 목적은 각자가 인정하는 반응에 관계된 자기 보고를 통하여 인식과 판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선호성을 알아내고 각자의 선호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결과들을 예측하여 실생활에서 도움을 얻어내려는데 있다. MBTI는 그동안 카운슬링, 심리치료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인력개발, 조직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교육훈련 전문가들에게 선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정택, 심혜숙, 2007; 서동윤, 2011).

MBTI 16가지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 -5] MBTI 16가지 유형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 3)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

MBTI 16가지 성격은 기능별 성격으로 구분하면 일반적인 태도인 외향과 내향에 따라, 감정과 사고가 서로 극을 이루고, 감각과 직관이 서로 극을 이루고 있어서 외향감정형, 내향감정형, 외향사고형, 내향사고형, 외향감각형, 내향감각형, 외향직관형, 내향직관형 기능별 8가지성격유형으로 나뉜다.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주기능, 보조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을 가지며, 특징적인 행동 유형을 보인다.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2007)은 MBTI의 성격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외향감정형(Fe): 외향감정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ESFJ / ENFJ

##### ① ESFJ (부기능: 내향감각)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며 인화를 중시한다. 또한 친절하고 재치가 있다. 참을성이 강하고 양심적이며 정리정돈을 잘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갖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데 재능이 있다. 심지어 이러한 의견들이 상호갈등을 일으킬 때도, 이들은 그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비판과 객관성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견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적인 일에 잘 적응하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물질적 소유를 즐긴다.

② ENFJ (부기능: 내향직관)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다. 친절하고 재치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볼 줄 안다. 공동의 선을 위해 대체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쓰기보다는 말로 표현을 잘한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능숙하고 쉽게 제시하며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

(2) 내향감정형(Fi): 내향감정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 - ISFP / INFP

① ISFP (부기능: 외향감각)

다른 사람에게 동정적이며 그 따뜻함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상대방을 잘 알게 될 때까지 이 따뜻함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다. 자신의 주관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16가지 성격유형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장 겸손하다. 이들은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일상생활에서도 관용적이고 개방적이며, 현재의 삶을 즐긴다.

② INFP (부기능: 외향직관)

마음이 따뜻하나 상대방을 잘 알게 될 때까지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조용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이해심이 많고 대체로 관대하며 개방적이다.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 열정적인 신념을 갖는다. 자신이 지닌 내적 성실성과 이상, 깊은 감정, 부드러운 마음을 좀처럼 표현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생활 속에서 묻어난다.



(3) 외향감각형(Se): 외향감각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ESTP / ESFP

① ESTP (부기능:내향사고)

관대하고 느긋하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별로 선입관을 갖지 않으며 개방적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적이며,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므로 갈등이나 긴장상황을 잘 무마시키는 능력이 있다. 현재 직면한 문제의 타협책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친구, 운동, 음식, 다양한 활동 등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생활의 모든 것을 즐긴다.

② ESFP (부기능:내향감정)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타협적이다. 주위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활동들에 관심이 많고 알고 싶어하며, 기꺼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사건 혹은 물건에도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이들은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인간 중심의 가치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린다.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데 필요한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하다.

(4) 내향감각형(Si): 내향감각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 - ISTJ / ISFJ

① ISTJ (부기능:외향사고)

실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한다. 매사에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집중력이 강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나 일을 할 때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해 나간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전통을 따르려고 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의 경험을 잘 적용한다. 또한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에 대해 인내심이 강하다. 때로는 세부사항에 집착하고 고집부리는 경향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세상 일에 대처할 때 행동이 매우 확고하고 분별력이 있다.



## ② ISFJ (부기능:외향감정)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며 헌신적이다. 세부적이고 치밀하며 반복을 요구하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등 인내심이 강하다. 이들이 가진 침착성과 인내심은 가정이나 집단에 안정감을 준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고려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다. 일을 처리할 때 현실 감각을 발휘하여,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편이다.

## (5) 내향사고형(Ti): 내향사고를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 - ISTP / INTP

### ① ISTP (부기능:외향감각)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체로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 열정적이고 호기심은 많지만 조용하다. 인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뚜렷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론을 제외한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않는다. 일과 관계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직접 뛰어 들지 않는다. 이들은 상황을 민첩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을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② INTP (부기능:외향직관)

조용하고 과묵하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보다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다.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비평을 잘한다. 일의 원리와 인과관계에 관심이 많으며, 실체보다는 실체가 안고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많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이해력이 빠르다. 높은 직관력을 지니고 있으며 통찰력이 뛰어나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친목회 혹은 잡담 등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 이들의 교제 범위는 보통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소수의 가까운 사람들이

다.

(6) 외향사고형(Te): 외향사고를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ESTJ / ENTJ

① ESTJ (부기능:내향감각)

일을 조직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사업이나 조직을 현실적, 사실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혼돈스럽고 불분명한 상태 또는 실용성이 없는 분야에는 큰 흥미가 없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를 응용하는 힘이 있다. 분명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고,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행한다.

② ENTJ (부기능:내향직관)

활동적이며 행정적인 일과 장기 계획을 선호한다. 일을 처리할 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한다. 능률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별로 없다. 필요할 경우 강하게 대처한다. 솔직하고 결정력과 통솔력이 있다. 지식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많으며, 특히 지적인 자극을 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다.

(7) 내향직관형(Ni): 내향직관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 - INFJ / INTJ

① INFJ (부기능:외향감정)

강한 직관력의 소유자로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으며 말없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독창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며,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원리원칙을 생활 속에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인화와 동료애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따른다.

② INTJ (부기능:외향사고)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내적인 신념과 비전은 산이라도 움직일 만큼 강하다. 16가지 유형 중 가장 독립적이고 단호하며, 어떤 문제에 대해 강한 고집을 부릴 때도 있다. 자신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8) 외향직관형(Ne): 외향직관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 ENFP / ENTP

① ENFP (부기능:내향감정)

온정적이고 열성적이며 창의적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잘 시작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여 즉흥적이고 재빠르게 해결해 나간다. 관심 있는 일은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열성파이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장 가능성을 들여다볼 줄 안다. 사람들을 잘 통솔하며 자신의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

② ENTP (부기능:내향사고)

독창적인 혁신가이고 창의력이 풍부하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유형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관심과 재능이 많다. 이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남들보다 먼저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민첩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감이 높다. 새로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 기민하고 박식하다.

#### 4. 선행연구

사주명리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들어 MBTI의 성격유형이론과 사주명리학을 관련지어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석란(2006)은 사주에서 일간의 성정, 태어난 계절과 관련되어진 월지와 격국의 많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착안하여 MBTI의 성격이론 중에서 외향성/내향성의 분류와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그리고 판단형/인식형 등 4가지 선호경향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목 일간이 외향형이 많고, 화 일간과 금 일간은 감각형이 많으며, 토 일간과 수 일간은 감정형이 많다고 하였다. 또 격국과 관련하여 비겁격과 인수격은 외향형이 많고, 비겁격과 재격은 감각형이 많으며, 인수격은 감정형이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하룡(2009)은 명리학과 MBTI성격유형이론과의 관련성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일간 오행과 성격유형론 네 가지 대칭척도, 일간 오행과 네 가지 기질이론, 그리고 월지 육신과 성격유형론 네 가지 대칭척도, 월지 육신과 네 가지 기질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금 일간은 매우 높은 NT(직관-사고)기질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월지가 인성인 사람은 주로 외향형으로 나타났으며, 재성은 직관형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NT(직관-사고)기질의 사람들은 재성과 관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직관기질인 NT와 NF는 모두 재성이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음을 입증하였다.

나남임(2010)은 MBTI 8가지 선호지표와 사주명리학의 일간과 천간에 드러난 십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비교 연구한 결과, 양일간인 사람은 외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견, 겁재, 정인, 편인은 감각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

고, 상관, 편재, 편관은 N선호도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사고는 정관, 편관, 편재가 관련성이 드러났으며, 식신, 상관, 비견, 겁재는 감정 선호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은 정재, 정인, 정관에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인식 선호도는 비견, 겁재, 편인, 편관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입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용신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석란(2006)의 연구에서는 MBTI 검사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 하였기 때문에, MBTI 성격유형검사지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에 비해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정하룡(2009)은 일간을 위주로 하였고, 나남임(2010)은 일간과 천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여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신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C시와 K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남자 27명, 여자 143명으로 전체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부터 70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으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하여 이주해 온 여성도 4명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MBTI검사는 검사지를 활용하였고, 검사지 상단에 태어난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주간명지를 작성하였다. MBTI 검사지는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그 중 171부가 회수되었고, 검사과정에서 1명의 표기 실수로 인하여 검사결과에서 제외시켜 총 170부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주간명지 역시 170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 2. 연구 도구

#### 1) 사주간명지

사주간명지는 사주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온 본 연구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주명리학의 스승인 전정훈(2009, 2010)의 문하생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사주를 생년월일시에 해당하는 육십갑자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 만세력에서 찾아 구조화하여 기록하였다.



## 2) MBTI 성격유형검사지(컴퓨터 채점용)

MBTI 성격검사지 컴퓨터채점용 GA를 사용하여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Isabel Myers와 Katharine Briggs에 의해 제작된 MBTI를 김정택과 심혜숙(2009)이 표준화한 한국어판 MBTI성격유형검사지(Form G)중 컴퓨터 채점용인 GA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한국어판 MBTI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재미교포 성인 201명을 대상으로 밝혀진 반분신뢰도가 EI지표 .77, SN지표 .81, TF지표 .78, JP지표 .82로 보고되어 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EI지표 .86, SN지표 .85, TF지표 .81, JP지표 .88로 나타났다. MBTI 한국어판과 영어판 간의 구성타당도는 EI지표 .91, SN지표 .90, TF지표 .90, JP지표 .91로 나타났고, 문항분석을 통해 변별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문항예언율은 E .71/I .76, S .77/N .77, T .71/F .91, J .76/P .86으로 나타났다(서동선, 1999).

##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주간명을 통해 드러난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나온 기능별 성격유형에 대해서 양적 분석하였다.

먼저 MBTI 성격유형검사를 위해 컴퓨터채점용인 GA검사지를 통해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을 검사하고 그 검사지의 상단에 생년월일시를 기록하게 하였다. MBTI검사지는 많은 인원의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채점으로 하고,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검사는 사주간명지를 본 연구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였다. 대상자들의 사주를 만세력에서 찾아 구조화하고 그 여덟 글자에 해당하는 음양과 오행을 넣어 십성을 나타낸 다음,



월지장간에 들어있는 용신을 월지와 천간에서 찾았다. 천간에 용신이 없을 경우 월지가 용신이 되거나, 일간과 월지가 같은 음양오행인 비견과 겁재(월건록, 월겁재)인 경우는 천간에 떠 있는 좋은 글자(관, 재, 인, 식)를 용신으로 삼는다. 용신을 찾는 법은 심효점의 자평진전(박영창, 2007)을 바탕으로 하였다.

#### 4.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을 정인, 편인, 상관, 식신, 편재, 정재, 편관, 정관으로 분류하고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을 내향적 사고형,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각형,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외향적 직관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후 각각 성격유형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연구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chi^2$ )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의 관계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chi^2$ )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IV-1>과 같다.

<표 IV-1>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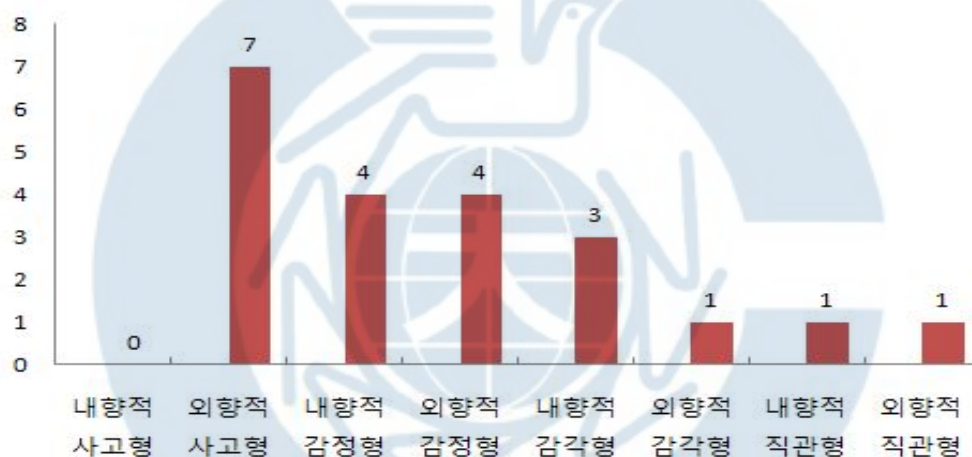
단위: 명(%)

MBTI 사주	내향적 사고형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각형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외향적 직관형	계
정인	0 (0.0)	7 (33.3)	4 (19.0)	4 (19.0)	3 (14.3)	1 (4.8)	1 (4.8)	1 (4.8)	21 (100.0)
편인	0 (0.0)	2 (33.3)	0 (0.0)	1 (16.7)	1 (16.7)	1 (16.7)	0 (0.0)	1 (16.7)	6 (100.0)
상관	1 (3.8)	2 (7.7)	0 (0.0)	12 (46.2)	7 (26.9)	1 (3.8)	3 (11.5)	0 (0.0)	26 (100.0)
식신	2 (8.7)	3 (13.0)	5 (21.7)	2 (8.7)	5 (21.7)	1 (4.3)	2 (8.7)	3 (13.0)	23 (100.0)
편재	3 (16.7)	3 (16.7)	2 (11.1)	2 (11.1)	1 (5.6)	5 (27.8)	1 (5.6)	1 (5.6)	18 (100.0)
정재	1 (4.2)	5 (20.8)	2 (8.3)	4 (16.7)	7 (29.2)	2 (8.3)	1 (4.2)	2 (8.3)	24 (100.0)
편관	1 (5.6)	6 (33.3)	1 (5.6)	0 (0.0)	2 (11.1)	4 (22.2)	1 (5.6)	3 (16.7)	18 (100.0)
정관	0 (0.0)	12 (35.3)	1 (2.9)	4 (11.8)	11 (32.4)	2 (5.9)	1 (2.9)	3 (8.8)	34 (100.0)
전체	8 (4.7)	40 (23.5)	15 (8.8)	29 (17.1)	37 (21.8)	17 (10.0)	10 (5.9)	14 (8.2)	170 (100.0)

df=49,  $\chi^2=72.611^*$ ,  $p=.016$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72.611$ ,  $p<.05$ ). 이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별에 따른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 분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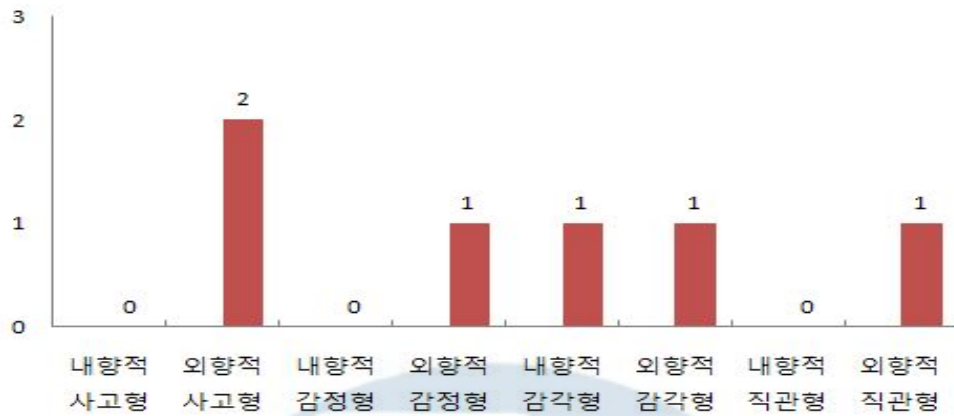
먼저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가운데 정인 성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정인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정인 성격에서 MBTI의 외향적 사고형이 7명(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내향적 감정형과 외향적 감정형이 각각 4명(19.0%), 내향적 감각형 3명(14.3%),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외향적 직관형이 각각 1명(4.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정인 성격은 MBTI의 외향적 사고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편인 성격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편인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편인 성격에서 MBTI의 외향적 사고형이 2명(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이 각각 1명(16.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편인 성격은 MBTI의 외향적 사고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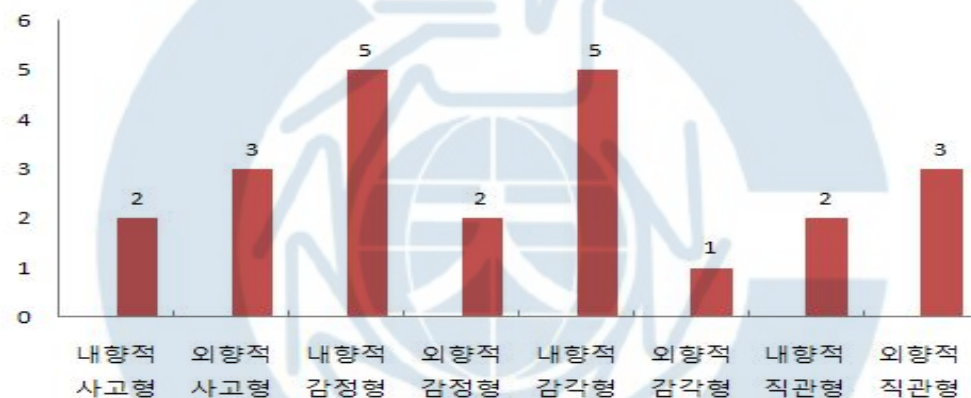
상관 성격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상관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상관 성격에서 MBTI의 외향적 감정형이 12명(46.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내향적 감각형 7명(26.9%), 내향적 직관형 3명(11.5%), 외향적 사고형 2명(7.7%), 내향적 사고형과 외향적 감각형은 각각 1명(3.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상관 성격은 MBTI의 외향적 감정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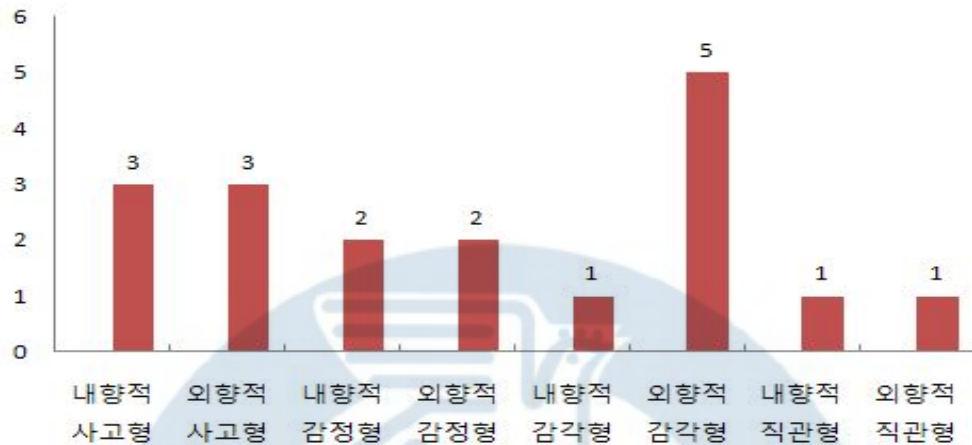
식신 성격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4] 식신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식신 성격에서 MBTI의 내향적 감정형과 내향적 감각형이 각각 5명(21.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외향적 사고형과 외향적 직관형이 각각 3명(13.0%), 내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직관형이 각각 2명(8.7%), 외향적 감각형 1명(4.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식신 성격은 MBTI의 내향적 감정형과 내향적 감각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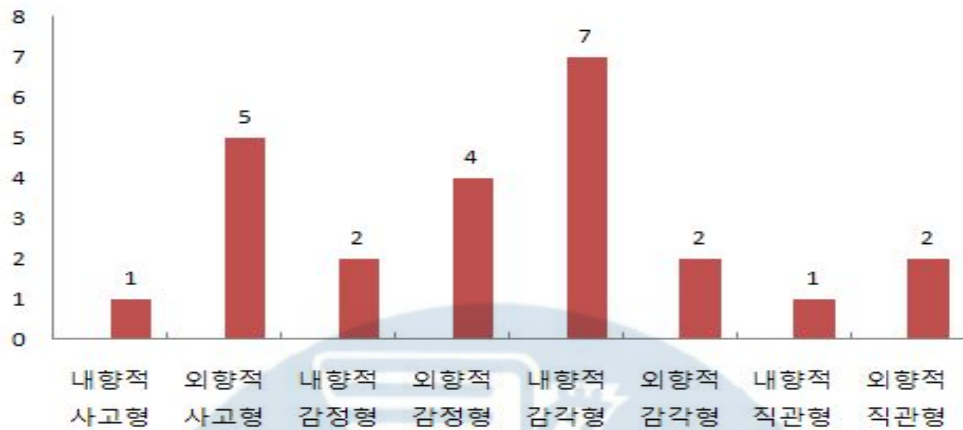
편재 성격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5]와 같다.



[그림 IV-5] 편재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편재 성격에서 MBTI의 외향적 감각형이 5명(27.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내향적 사고형과 외향적 사고형이 각각 3명(16.7%), 내향적 감정형과 외향적 감정형이 각각 2명(11.1%),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외향적 직관형이 각각 1명(5.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편재 성격은 MBTI의 외향적 감각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재 성격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6]과 같다.



[그림Ⅳ-6] 정재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정재 성격에서 MBTI의 내향적 감각형이 7명(2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외향적 사고형 5명(20.8%), 외향적 감정형(16.7%),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이 각각 2명(8.35),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직관형이 각각 1명(4.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정재 성격은 MBTI의 내향적 감각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편관 성격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Ⅳ-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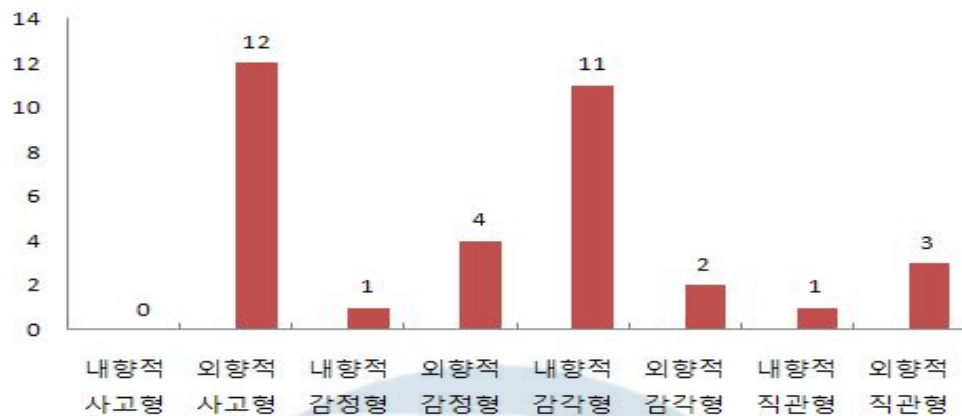




[그림 IV-7] 편관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편관 성격에서 MBTI의 외향적 사고형이 6명(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외향적 감각형이 4명(22.2%), 외향적 직관형이 3명(16.7%), 내향적 감각형이 2명(11.1%),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직관형이 각각 1명(5.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편관 성격은 MBTI의 외향적 사고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관 성격의 MBTI 성격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8]과 같다.



[그림 IV-8] 정관 성격의 MBTI 8가지 성격유형별 분포

사주명리학의 정관 성격에서 MBTI의 외향적 사고형이 12명(3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내향적 감각형이 11명(32.4%), 외향적 감정형이 4명(11.8%), 외향적 직관형이 3명(8.8%), 외향적 감각형이 2명(5.9%),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직관형이 각각 1명(2.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정관 성격은 MBTI의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각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MBTI 에너지 방향과 사주명리학 성격유형 간의 관계

MBTI 에너지 방향(내/외향, 사고/감정, 감각/직관)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내/외향성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내/외향성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IV-2>

와 같다.

<표 IV-2> 내/외향성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단위: 명(%)

사주 성격	내향/외향		계
	내향	외향	
정인	8(38.1)	13(61.9)	21(100.0)
편인	1(16.7)	5(83.3)	6(100.0)
상관	11(42.3)	15(57.7)	26(100.0)
식신	14(60.9)	9(39.1)	23(100.0)
편재	7(38.9)	11(61.1)	18(100.0)
정재	11(45.8)	13(54.2)	24(100.0)
편관	5(27.8)	13(72.2)	18(100.0)
정관	13(38.2)	21(61.8)	34(100.0)
전체	70(41.2)	100(58.8)	170(100.0)
df=7, $\chi^2=6.976$ , $p=.431$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내/외향성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한 결과,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내/외향성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chi^2=6.976$ ,  $p>.05$ ).

## 2) 사고/감정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사고/감정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I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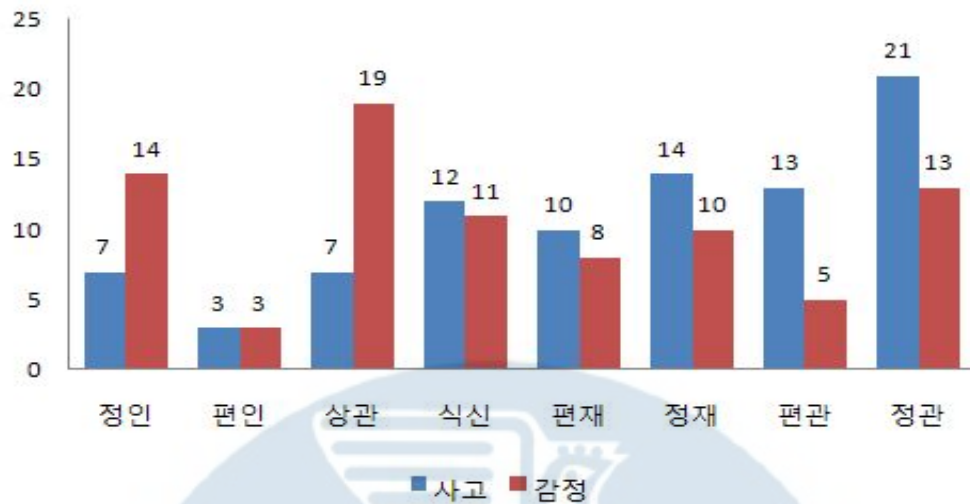
과 같다.

<표 IV-3> 사고/감정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단위: 명(%)

사주 성격	사고/감정		계
	사고	감정	
정인	7(33.3)	14(66.7)	21(100.0)
편인	3(50.0)	3(50.0)	6(100.0)
상관	7(26.9)	19(73.1)	26(100.0)
식신	12(52.2)	11(47.8)	23(100.0)
편재	10(55.6)	8(44.4)	18(100.0)
정재	14(58.3)	10(41.7)	24(100.0)
편관	13(72.2)	5(27.8)	18(100.0)
정관	21(61.8)	13(38.2)	34(100.0)
전체	87(51.2)	83(48.8)	170(100.0)
df=7, $\chi^2=14.156^*$ , $p=.048$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사고/감정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한 결과,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사고/감정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chi^2=14.156$ ,  $p<.05$ ). 사고/감정 선호도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별 사고/감정 분포

사고/감정 선호도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인 성격에서 감정이 14명(66.7%)으로 사고 7명(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인 성격에서는 감정과 사고가 각각 3명(50.05%)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상관 성격에서는 감정 19명(73.15%)으로 사고 7명(26.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신 성격에서는 사고 12명(52.2%), 감정 11명(47.8%)으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편재 성격에서도 사고 10명(55.6%), 감정 8명(44.4%)으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재 성격에서는 사고 14명(58.3%)으로 감정 10명(41.7%)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관 성격에서는 사고 13명(72.25%)으로 감정 5명(2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관 성격에서 사고 21명(61.8%)으로 감정 13명(38.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의 성격 가운데 편관, 정관 성격 유형은 사고형과 정인, 상관은 감정형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3) 감각/직관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감각/직관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IV-4>와 같다.

<표 IV-4> 감각/직관과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 간의 관계

단위: 명(%)

사주 성격	감각/직관		계
	감각	직관	
정인	15(71.4)	6(28.6)	21(100.0)
편인	3(50.0)	3(50.0)	6(100.0)
상관	20(76.9)	6(23.1)	26(100.0)
식신	15(65.2)	8(34.8)	23(100.0)
편재	14(77.8)	4(22.2)	18(100.0)
정재	20(83.3)	4(16.7)	24(100.0)
편관	13(72.2)	5(27.8)	18(100.0)
정관	26(76.5)	8(23.5)	34(100.0)
전체	126(74.1)	44(25.9)	170(100.0)
df=11, $\chi^2=4.275$ , $p=.748$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감각/직관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한 결과, MBTI 에너지 방향 가운데 감각/직관과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chi^2=4.275$ ,  $p>.05$ ).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해보고,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1의 내향감각과 정재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감각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ISFJ와 ISTJ 유형은 정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성격의 특징이 매사에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검소하고 성실하다. 또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신용이 있다는 것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남임(2010)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본 S(감각), J(판단)가 일지와 천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주명리학의 정재와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둘째, 연구문제 1-2의 외향감각과 편재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감각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ESTP와 ESFP 유형은 편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성격의 특징이 재주가 많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개척가 정신이 있다. 물질적 소유를 좋아하고 현실적이며 낙천적이라는 점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석란(2006)의 감각형과 재성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나남임(2010)의 편재가 N(직관), T(사고), P(인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연구문제 1-3의 내향직관과 편인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향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INFJ와 INTJ 유형에서는 편인과 유사한 점이 많다. 성격의 특징이 창의력, 직

관력이 우수하며,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다. 또 독립심이 강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며, 외골수가 많다는 것이 두 성격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주명리학의 편인 성격이 외향적 사고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연구문제 1-4의 외향직관과 정인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향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ENTP와 ENFP 유형과 정인은 유사한 점이 많다. 박학다식하며 생각이 깊고 총명하다. 또 풍부한 상상력과 즉흥적이고 재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인 성격이 외향적 사고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섯째, 연구문제 1-5의 내향사고와 편관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향사고를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INTP와 ISTP 유형과 편관은 총명하며 결단력이 뛰어나다. 또 호기심이 강하고, 이해가 빠르고 통찰력이 우수하다는 등의 유사점이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관이 사고유형과 관련성이 나타났지만, 내향사고 보다는 외향사고유형과의 관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남임(2010)의 사주의 편관이 MBTI의 P(인식), T(사고), N(직관)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로 볼 때, 편관이 사고유형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연구문제 1-6의 외향사고와 정관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사고를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ENTJ와 ESTJ 유형과 정관 간에는 행정적인 일처리를 잘하며, 체계적이고 원리원칙대로 한다. 규칙을 준수하며 일을 처리하고 완수한다. 또 관용과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등의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남임(2010)과 정하룡(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정관이 내향감각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MBTI 내향감각형들이 원칙을 잘 지키고

꾸준하며 조직에 안정감을 주는 성향이 많아 정관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라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일곱째, 연구문제 1-7의 내향감정과 식신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감정을 주기능으로 하는 ISFP와 INFP 유형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도량이 넓고 문예나 기예에 능하다. 또 주변과의 화합도모를 중시하고 겸손하고 온화하다는 점에서 식신과 유사점이 있다. 나남임(2010)의 연구에서도 식신이 F(감정)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신은 내향 감각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신의 성격이 상관에 비해 내향성향이 강하다는 사주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이라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여덟째, 연구문제 1-8의 외향감정과 상관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감정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ESFJ와 ENFJ 유형은 사교성이 좋아서 대인관계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의사소통에 능하고, 말로 생각을 잘 표현하고 설득력이 있다. 또 예술가 기질과 가르치는데 능력을 발휘한다는 특징에서 상관과 유사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외향감정이 상관과의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나남임(2010)의 MBTI의 E(외향)와 F(감정)가 사주의 상관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은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관과 외향감정은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관 또한 외향사고와의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편재와 외향감각, 정재와 내향감각, 식신과 내향감정 등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내·외향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T(사고)유형과 관성(편관, 정관) 또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로는 사주명리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활용에 비해 학문적으로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주명리학의 성격이론을 MBTI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연구를 통해, 개인을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을 분류하여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다. 이와 관련한 하위영역으로 내향감각과 정재(正財), 외향감각과 편재(偏財), 내향직관과 편인(偏印), 외향직관과 정인(正印), 내향사고와 편관(偏官), 외향사고와 정관(正官), 내향감정과 식신(食神), 외향감정과 상관(傷官)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경남 C시와 K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남자 27명, 여자 143명으로 전체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만 20~70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으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하여 이주해 온 여성도 4명 포함 되었다. 연구는 2011년 9월 20일~11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MBTI검사는 GA검사지를 활용하였고, 검사지 상단에 태어난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주간명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구분하여 각각 성격유형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연구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chi^2$ )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은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 영역의 상관관계에서는 외향감정과 상관, 외향사고와 정관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향감각과 정재, 외향감각과 편재, 내향감정과 식신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편관은 내향사고보다는 외향사고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고유형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편인과 정인은 연구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은 MBTI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사주명리학이 역(易)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동양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은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검사로써 융이 심리학에 동양의 역(易)사상을 가미한 서양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역사상을 밑바탕에 두고 있으며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이론상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동·서양의 노력이 공존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두 성격유형간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두 성격유형 간의 성격구분에서 엄밀히 존재하고 있는 성격특성의 차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컸다는 점이 연구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본 연구의 통계적인 어려움으로 사주명리학의 용신과 MBTI 기능별 성격유형 중 주기능과의 관련성만을 살펴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MBTI의 부기능 역시 주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능이므로 개인의 성격적인 특징이 많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사주성격과의 관련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MBTI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선호점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어질 수도 있어, 사주명리학에서 보자면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ESFJ유형으로 나타난 사람의 경우 주기능을 외향감정형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F점수가 1점이라면 외향과 내향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성격에 있어서는 외향사고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주기능이 전혀 다른 성격유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MBTI 성격검사가 비교적 신뢰도가 높지만 환경의 영향, 검사 시기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접하게 된다. 유형이론에서는 환경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간의 차이가 때때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주명리학의 성격도 사주자체만으로는 선천적인 성격이라고 보지만 운에 따라서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주기운이 바뀌면서 성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사주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의 흐름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주명리학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성격유형검사인 MBTI를 동양의 사주명리학의 성격유형과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사주명리학의 학문적 가치를 알리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권지아(2010). **부부의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식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미유리(2006). **이마의 3차원 형상과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성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춘미향(2008). **고전 연해자평의 이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7). **사주명리학 십성의 성격과 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와의 비교 연구**.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완(2000). **사주(성격)성명학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진로적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5). **사주명리학 완전정복(2)**. 서울: 동학사.
- 김미라(2010).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배성(2004). **사주심리치료학**. 서울: 창해.
- 김상연(2003). **컴퓨터 만세력**. 서울: 갑을당.
- 김석란(2006). **사주와 MBTI 성격이론과의 상관관계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2005). **격국을 통해 본 직업과의 상관성 연구: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희(1990). **한의학원론**. 서울: 정보사.
- 김정택, 김명준(2009).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서울: (주)어세스타.
- 김정택, 심혜숙(2007).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주)어세스타.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공역(2009). **MBTI개발과 활용**. 서울: (주)어세스타.

- 김종만(2006).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상(2007). **사주의 십성구조와 언어능력과의 상관성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균(2003).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사주의 과학화**. 공주대학교 정신과학연구소 편저. **정신과학-역리편(총론)**. 서울: 청목출판사.
- 나남임(2010). **명리학의 성격론과 MBTI 성격유형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 강영신(2009).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류시화 역(2001).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서울: 김영사.
- 명재남(2007). **음양오행론의 상담·심리치료 적용 가능성 탐색**.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송희(2008). **사주구성원리로 본 인간심리 연구: 십성의 성격에 따른 진로선택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현(1996). **마음을 읽는 사주학**. 서울: 동학사.
- 박영창 역(2007). **자평진전평주**. 서울: 청학출판사.
- 박왕용(1997). **오행학설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완(1980). **명리요강**. 서울: 전광산업사.
- 박현순, 이창인(2007). **칼 융**. 서울: 학지사.
- 서동선(1999). **MBTI 성격검사와 아이젠크 성격검사(EPQ)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윤(2011). **MBTI 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의 상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재학(2005). **음양오행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8).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인창(1996). 역학에 있어서의 인간성명의 문제. **주역연구1**, 197-229.
- 신경수(2003). **당·송대 명리적 삼재론과 주체관점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은(2011). **성격유형(MBTI)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방향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열 역(2007). **연해자평정해**. 서울: 명문당.
- 유시옥(2009). **명리오행 체질론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순임외 공저(1997). **현대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길영(2002). **음양오행설에 토대를 둔 인생주기와 인간발달에 관한 이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2010). **분석심리학**. 서울: (주)일조각.
- 이성우(2008). **사주가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2005). **사주용신과 직업의 상관관계 연구: 교사와 약사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준(2004).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화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2006).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전정훈(2009). **사주와 인생**. 서울: 상원문화사.
- \_\_\_\_\_ (2010). **사주와 직업**. 창원: 혜경출판사.
- \_\_\_\_\_ (2011). **용신과 격국**. 창원: 혜경출판사.

- 정국용(2003).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진 역(2009). **성격의 재발견**. 서울: 부글북스.
- 정진우(2008). **사주의 오행 분포와 용신이 색깔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하룡(2009). **명리학의 성격유형분류 연구: MBTI유형별 사주분석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규문(2005). **사주명리학에 적용된 음양오행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현(2001). 조선시대 사주명리학과 반란사건. **신종교연구**, 5, 66-80.
- 조중석(2010). **명리학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례(2010). **MBTI 성격유형과 점성학 성격유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MBTI연구소(2010). **MBTI 초급과정**. 부산: (주)한국MBTI연구소.
- 한동석(2001).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 함인근(2007). **명리학의 자연과 연구: 천간지지의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덕건(2010). **동양적성상담이론에 의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성향의 관점에서**.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ung, C. G.(1971). *Psychological types* (H. G. Baynes, Trans. revised by R. F. C. Hull). Volume 6 of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1).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ight Personality Types of Saju-Myungri and Eight functional Personality Types of MBTI

*by Jeon, Ju-Young*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Byung-Chae, ph. 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ight personality types of Saju-Myunri and eight functional personality types of MBTI.

The issue was that there are some relationships between the eight personality types of Saju-Myunri and eight functional personality types of MBTI. The subordinate concepts wer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rovert sense and jeongjae, extrovert sense and pyunjae, introvert intuition and pyunin, extrovert intuition and jeongin, introvert thinking and pyunguan, extrovert thinking and jeongguan, introvert feeling and sicksin, and extrovert feeling and sangguan.

27 and 143 of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who lived C and K cities in Gyungnam province. Their ages ranged from 20-70. Among the participants there were 4 Japanese married female migrants. The period of the study was between September 20th and November 15th, 2011. GA sheet was used in the MBTI examination, and the dates of their birth were recorded on the top of the sheet, which led to the production of Sajuganmungji.

Collec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the eight personality types of Saju-Myunri and eight functional personality types of MBTI. by using the program of PASW Statistics 18.0(SPSS 18.0) which led to the search of the frequency and rate of each personality. Then the results went into Chi-Square( $\chi^2$ ) tes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s a who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ight personality types of Saju-Myunri and eight functional personality types of MBTI was significant.

Second, in the subordinate concepts,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overt feeling and sangguan and extrovert thinking and jeongguan was high, and the relationship introvert sense and jeongjae, extrovert feeling and pyungjae, introvert feeling and sicksin were also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pyungaun was extrovert thinking rather than introvert thinking, which indicated that it was generally related with the type of thinking. In the mean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pyungin and jeonin was not significant, which indicated that these types were not related with the personality types of MBTI.



<부록>

▶ MBTI 유형과 사주용신(사주의 주기능)

NO	이름	MBTI 타입	MBTI 점수	MBTI 주기능	생년월일시 (음력)	사주 용신(사주의 주기능)
1	오○○	ESFP	45 15 25 11	외향감각형	1985.6.3.묘시	정인, 정재
2	이○○	ENTP	25 15 7 7	외향직관형	1963.11.25사시	편관, 식신
3	조○○	ESFJ	7 27 3 13	외향감정형	1963.6.14.유시	상관, 정재
4	이○○	ESTJ	37 33 35 37	외향사고형	1963.4.21.유시	식신, 편관
5	황○○	ESTJ	9 13 7 11	외향사고형	1961.12.12신시	편관, 편재
6	양○○	ENFP	41 45 39 13	외향직관형	1974.윤4.28신시	정관, 편재
7	조○○	ESFP	43 55 37 29	외향감각형	1973.7.18축시	편관, 정인
8	윤○○	ISTJ	5 21 39 25	내향감각형	1976.7.20자시	편관
9	이○○	ISFJ	27 51 21 37	내향감각형	1976.8.28	정재
10	양○○	ESFJ	7 25 31 35	외향감정형	1972.12.17신시	상관, 편관
11	정○○	ENTJ	51 17 21 13	외향사고형	1975.11.15인시	정관, 편관
12	이○○	ESTP	47 61 13 27	외향감각형	1971.9.6해시	편관, 정인
13	한○○	ESTJ	11 33 19 3	외향사고형	1976.5.16사시	정관
14	정○○	ESFJ	5 43 13 13	외향감정형	1947.2.22	상관
15	홍○○	ESFJ	35 5 7 23	외향감정형	1976.11.13오시	편재
16	성○○	ESFJ	39 13 1 29	외향감정형	1972.2.16해시	정재
17	한○○	ESTJ	17 31 21 45	외향사고형	1979.1.17유시	정재, 정관, 편인
18	박○○	ISTJ	23 31 3 15	내향감각형	1980.6.12인시	식신, 정재
19	조○○	ISTP	1 1 11 19	내향사고형	1977.1.19유시	상관, 정인
20	김○○	ISFJ	5 33 1 29	내향감각형	1973.7.4술시	정인, 편관
21	김○○	ISFJ	15 35 7 27	내향감각형	1976.6.29술시	정관, 편인
22	조○○	ESFP	37 33 11 29	외향감각형	1972.12.22사시	정관, 상관
23	김○○	ISFP	33 1 13 13	내향감정형	1976.8.11진시	식신
24	김○○	INFJ	45 11 37 19	내향직관형	1974.윤4.11인시	정재, 편관
25	김○○	ESFJ	23 15 25 43	외향감정형	1974.7.5유시	정관, 정인
26	노○○	INFP	45 1 33 29	내향감정형	1974.2.9묘시	식신, 편재
27	이○○	INFP	47 41 11 35	내향감정형	1962.12.26진시	편재, 정인
28	장○○	ESTJ	7 55 27 39	외향사고형	1970.10.30인시	정관, 정재, 정인



29	나○○	ENTJ	9 3 1 7	외향사고형	1974.9.18해시	정인
30	김○○	ISFP	51 3 35 35	내향감정형	1968.10.28인시	식신
31	남○○	ISFJ	37 45 7 7	내향감각형	1972.9.27술시	정재, 상관
32	장○○	ESFP	29 37 23 15	외향감각형	1970.6.20묘시	상관, 정재
33	박○○	ISTJ	37 45 13 23	외향사고형	1972.1.11사시	편인, 정관
34	양○○	INTJ	31 1 35 15	내향직관형	1970.5.6묘시	정관, 정인
35	허○○	ESFJ	7 37 1 9	외향감정형	1973.5.3해시	편관, 정관
36	강○○	ESTP	3 27 7 41	외향감각형	1970.10.26술시	편재
37	이○○	ESTJ	25 11 17 1	외향사고형	1969.11.5해시	정관, 편재
38	이○○	ESFJ	47 17 25 5	외향감정형	1973.3.7사시	편인
39	김○○	ESFJ	41 35 21 9	외향감정형	1959.10.11묘시	정관, 편관
40	박○○	ENFP	39 23 29 39	외향직관형	1968.8.3오시	편재
41	김○○	ESTJ	23 37 41 3	외향사고형	1977.2.9오시	편관
42	허○○	ISTJ	43 17 11 35	내향감각형	1979.3.13묘시	식신, 정재
43	배○○	ISTP	27 17 19 23	내향사고형	1977.10.1축시	정재
44	박○○	ESFJ	11 7 1 11	외향감정형	1984.2.9인시	상관, 식신
45	조○○	ESTJ	13 35 25 35	외향사고형	1970.8.28자시	편재
46	성○○	ESTP	7 39 7 11	외향감각형	1970.1.29묘시	정재, 정관
47	박○○	ESTJ	21 39 13 9	외향사고형	1976.12.27진시	식신
48	이○○	ESFJ	37 51 11 3	외향감정형	1976.7.20유시	상관, 편재
49	임○○	ESTJ	33 37 1 5	외향사고형	1973.2.5진시	편재
50	이○○	ISTJ	19 41 21 47	내향감각형	1969.2.17술시	정관, 편재
51	정○○	INFP	35 29 17 37	내향감정형	1968.12.19묘시	정재, 정관
52	백○○	ISTJ	27 15 7 47	내향감각형	1968.5.27사시	편재, 정관
53	이○○	ISFP	9 19 25 37	내향감정형	1970.10.21술시	편재
54	홍○○	ISFJ	37 37 9 47	내향감각형	1971.1.1신시	정관, 편인
55	이○○	ENFP	25 37 37 55	외향직관형	1973.6.6술시	정재, 편관
56	김○○	INTJ	43 41 29 5	내향직관형	1968.3.18진시	정재
57	정○○	ISTJ	17 21 19 5	내향감정형	1953.4.14신시	상관, 편관
58	김○○	ISFJ	5 53 11 37	내향감각형	1974.1.22술시	상관
59	한○○	ENTJ	9 45 31 35	외향사고형	1971.6.15해시	정관
60	한○○	ESFP	9 37 15 23	외향사고형	1975.4.25신시	정관
61	김○○	ESFJ	13 39 25 15	외향감정형	1977.9.9술시	정인

62	백○○	ISTJ	19 59 35 49	내향감각형	1975.9.28축시	편인, 정관
63	정○○	ISTJ	1 39 1 29	내향감각형	1975.4.14술시	정관, 정인
64	최○○	ISTJ	9 35 7 13	내향감각형	1969.1.1신시	상관, 정재
65	박○○	INTJ	21 3 23 39	내향직관형	1965.12.9해시	편재
66	감○○	ESFJ	45 33 19 19	외향감각형	1967.11.6자시	편관, 식신
67	강○○	ISFJ	15 47 9 21	내향감각형	1973.3.4미시	편관, 정재
68	노○○	ESFJ	13 35 5 49	외향감정형	1969.12.24진시	편인, 상관
69	김○○	ISTJ	25 41 19 35	내향감각형	1972.10.4사시	편인, 정재
70	박○○	ESTJ	5 27 3 11	외향사고형	1967.11.26술시	편인, 정인
71	홍○○	ESTJ	7 27 33 15	외향사고형	1968.10.24사시	편관
72	감○○	ISFP	43 25 11 21	내향감정형	1972.12.23축시	편관
73	이○○	ESTJ	43 27 27 27	외향사고형	1970.9.9묘시	편관, 정관
74	김○○	ENFP	21 7 25 21	외향직관형	1974.6.25술시	정관, 정인
75	박○○	ESTJ	7 29 51 51	외향사고형	1975.1.16오시	상관, 정관
76	김○○	ESTJ	35 31 49 29	외향사고형	1970.5.30신시	상관
77	임○○	ESTJ	15 23 27 33	외향사고형	1971.11.14사시	상관
78	감○○	ISTJ	21 59 15 41	내향감각형	1970.2.8사시	정재
79	김○○	ESFJ	33 33 27 13	외향감정형	1973.6.7진시	편재, 정재, 정관
80	이○○	INTJ	45 1 21 31	내향직관형	1973.7.23진시	상관, 편재
81	유○○	ESTJ	5 33 25 43	외향사고형	1963.9.2자시	편재
82	홍○○	INFJ	47 27 21 5	내향직관형	1968.1.5사시	편관
83	이○○	ENFP	35 21 15 21	외향직관형	1968.5.13미시	편인
84	서○○	ISTJ	23 37 19 41	내향감각형	1964.8.21인시	상관, 정재
85	오○○	ESFJ	39 31 5 1	외향감정형	1987.6.25오시	식신, 편인
86	빈○○	ISTJ	41 45 53 33	내향감각형	1976.7.24해시	정인, 정재
87	김○○	ESFP	41 39 31 39	외향감각형	1978.1.12신시	정재, 정관
88	권○○	ESTJ	43 9 27 9	외향사고형	1974.5.26오시	정인
89	류○○	ISFJ	5 3 9 33	내향감각형	1970.1.13미시	정관
90	조○○	ISTJ	1 33 31 33	내향감각형	1974.2.22자시	식신
91	김○○	ESTJ	17 59 41 45	외향사고형	1975.2.22인시	편관
92	박○○	ESTJ	47 5 1 27	외향사고형	1976.10.27진시	정인
93	이○○	ESFP	21 9 19 33	외향감각형	1971.4.15묘시	식신, 상관, 정관
94	석○○	ISFJ	9 57 27 13	내향감각형	1975.6.11유시	정인, 상관

95	윤○○	ISFP	1 9 23 31	내향감정형	1976.8.21인시	식신
96	김○○	ISTJ	19 45 7 27	내향감각형	1971.9.13진시	식신
97	강○○	ESTJ	31 45 7 19	외향사고형	1969.12.26유시	편관, 편인
98	최○○	ESTJ	19 43 9 23	외향사고형	1972.3.24술시	편인, 정관
99	우○○	INTP	19 15 9 1	내향사고형	1992.2.3사시	편재
100	안○○	ESTJ	9 37 41 15	외향사고형	1973.5.24술시	편관, 정인
101	정○○	ENTJ	29 5 3 13	외향사고형	1974.10.19사시	정관, 정인
102	안○○	ESFJ	13 19 3 33	외향감정형	1980.9.29신시	정재, 정인
103	안○○	ESFJ	35 11 19 11	외향감정형	1966.1.22인시	식신, 편재
104	정○○	ISFP	1 65 13 1	내향감정형	1966.5.28미시	정인, 상관
105	우○○	INFP	31 21 3 21	내향감정형	1966.2.14진시	상관, 정재
106	우○○	INTP	19 31 19 19	내향사고형	1992.9.9술시	편인, 편관
107	정○○	ISTJ	11 47 7 5	내향감각형	1970.9.6자시	상관, 식신
108	이○○	ESTP	7 23 9 11	외향감각형	1970.3.29묘시	편재
109	황○○	ENFP	13 17 3 13	외향직관형	1980.8.26사시	정재
110	황○○	ESFJ	7 23 17 27	외향감정형	1976.4.30자시	정관, 정인
111	김○○	ENFJ	53 11 21 3	외향감정형	1984.12.10사시	정관, 편인
112	추○○	ESTJ	23 5 37 13	외향사고형	1980.10.29축시	편재
113	황○○	ISTJ	9 67 3 21	내향감각형	1942.5.28	식신, 편재
114	차○○	ISFP	11 61 25 1	내향감정형	1952.3.25	정인, 정재
115	허○○	ENFP	11 7 9 19	외향직관형	1980.2.7사시	정관, 편재
116	강○○	ENFJ	29 25 3 5	외향감정형	1980.9.5해시	상관, 정인
117	이○○	ISFJ	13 21 19 29	내향감각형	1982.2.3오시	편재, 식신
118	유○○	ISTJ	15 59 21 41	내향감각형	1972.3.13자시	정인, 정관
119	최○○	INFJ	9 3 17 29	내향직관형	1968.4.20묘시	상관
120	김○○	ISTJ	19 13 9 13	내향감각형	1969.10.19진시	정관, 정인, 식신
121	하○○	ESTJ	13 7 25 23	외향사고형	1976.4.4유시	정인, 편재
122	이○○	ISTP	27 11 55 51	내향사고형	1985.8.12신시	상관, 식신
123	김○○	INFJ	41 37 21 45	내향직관형	1985.2.25묘시	식신, 정관
124	전○○	ESFJ	3 41 7 27	외향감정형	1971.10.15술시	상관, 정인
125	김○○	ISFJ	39 13 7 3	내향감각형	1972.11.30인시	상관
126	주○○	ESTJ	7 13 11 27	외향사고형	1972.7.11사시	편인, 편관
127	조○○	ESTP	9 17 17 31	외향감각형	1964.8.30유시	편재

128	박○○	ISTJ	35 55 29 53	내향감각형	1964.3.10자시	편인, 편재
129	김○○	ESFJ	5 1 15 13	외향감정형	1977.4.11미시	상관, 식신
130	유○○	ISFJ	23 61 15 23	내향감각형	1972.3.25미시	정인, 식신
131	류○○	ESTJ	5 51 11 35	외향사고형	1973.9.9묘시	편인
132	김○○	ENTP	39 35 23 5	외향직관형	1964.10.6자시	식신, 정인
133	유○○	ISFJ	31 45 13 1	내향감각형	1971.5.20인시	정관
134	카○○	ESFJ	5 25 11 21	외향감정형	1958.5.20인시	상관, 식신, 편재
135	아○○	INFP	11 39 19 45	내향감정형	1960.11.8진시	편관
136	이○○	ESFJ	43 35 23 9	외향감정형	1986.12.6오시	정인
137	신○○	ISFP	7 41 19 19	내향감정형	1963.1.25인시	식신
138	강○○	ISTJ	43 15 17 37	내향감각형	1963.12.23오시	상관, 정인
139	유○○	ISFP	15 31 17 27	내향감정형	1961.8.6오시	편인, 편재
140	마○○	ESTJ	31 7 9 15	외향사고형	1961.10.15묘시	정재
141	문○○	ESTJ	29 47 3 45	외향사고형	1970.3.20묘시	정재, 정관
142	정○○	ESTJ	33 11 15 9	외향사고형	1988.8.5오시	편인, 정관
143	정○○	INFJ	27 1 13 21	내향직관형	1977.1.12미시	정인
144	도○○	ESFP	33 11 15 45	외향감각형	1966.9.5사시	편인, 편관
145	김○○	ESTJ	11 47 35 53	외향사고형	1970.8.10자시	정인
146	안○○	ENFP	23 33 31 1	외향직관형	1983.2.25사시	정관, 식신
147	이○○	INTP	23 23 5 41	외향감각형	1988.8.11신시	식신
148	이○○	ESTP	33 3 1 29	외향감각형	1986.3.27자시	정재, 정관
149	전○○	ENFJ	11 5 41 19	외향감정형	1985.4.4진시	편재, 정인
150	정○○	ESTJ	23 25 1 9	외향사고형	1986.3.23신시	정인, 정재
151	김○○	ISFJ	35 59 7 31	내향감각형	1971.11.24진시	정인
152	손○○	ENTJ	23 1 9 21	외향사고형	1971.7.14오시	정관, 정재
153	이○○	ENFP	23 35 25 35	외향직관형	1983.5.3자시	정재, 편관
154	정○○	ESTJ	21 31 5 37	외향사고형	1965.9.3묘시	정관
155	이○○	ESTJ	45 45 35 33	외향사고형	1961.8.14유시	식신
156	박○○	ENFJ	9 31 23 23	외향감정형	1982.4.11오시	상관, 정관, 정인
157	박○○	ESFJ	13 57 5 43	외향감정형	1985.10.21진시	정인
158	임○○	ESFP	7 17 25 35	외향감각형	1982.10.7유시	정재, 편재
159	고○○	ISTJ	45 53 1 27	내향감각형	1970.4.22인시	정재, 편재
160	이○○	INTJ	3 17 33 19	내향직관형	1968.7.23오시	식신

161	주○○	ENTP	45 7 19 9	외향직관형	1978.3.4오시	정관
162	김○○	ENFJ	33 1 19 31	외향감정형	1983.12.15미시	상관, 정인
163	오○○	ENFP	47 25 1 15	외향직관형	1989.7.1	정재
164	추○○	ESTP	13 5 17 3	외향감각형	1985.8.13	식신
165	김○○	ISTP	25 39 13 23	내향사고형	1975.10.21술시	식신
166	박○○	ISFP	1 31 13 9	내향감정형	1979.8.21자시	정인
167	손○○	ESFP	45 9 3 9	외향감각형	1966.2.7묘시	편인, 편재
168	허○○	ENTJ	17 3 1 3	외향사고형	1992.12.12축시	편인, 정인
169	이○○	INTP	37 37 37 37	내향사고형	1974.9.23해시	편재,편관,정인
170	조○○	ENTP	7 15 29 37	외향직관형	1982.5.19신시	편재, 편관

